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승리함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25, 26)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3월 19일 (토) 제 1576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부활절 초대 시

## 부활의 새아침



전정구 목사  
웨이스신학교 성경신학 및 조지신학 교수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이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날짜만 기다리며 사는데도

그저 아무 일 없다고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희희낙락하며 잘 살아가네

부활의 새아침  
돌무덤에  
준엄한 심판 주검으로 누워계시던  
아들을  
아버지께서 별떡 일으키셨네.....

놀라워라  
지금 세상에도  
아들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죽어도 죽지 않는  
첫째 부활의 은혜를 주시다니

그 누가  
부활의 은혜를 알라  
그 누가 부활의 새아침을 그토록 사모하라

겨우내 새까맣게 죽었던  
나뭇가지마다

이 새봄  
앞산 뒷산에  
앞다투어 탄성을 지르며  
새싹이 돋아나고  
꽃잎이 피어나네

언 땅속  
숨죽이고 죽어있던 수선화  
어느덧 노랗게 피어나  
맑고 아름다운 얼굴로  
보란 듯이  
부활의 새아침을 소리 없이 노래하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아들이시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다시 오시면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새아침을  
딩실딩실 춤추며 노래하리

새 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천상의 언어  
천상의 몸짓으로.....  
covenantjeon@yahoo.com

### 발행인 칼럼



장영춘 목사 | 본지 발행인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 오신 후의 인류의 역사는 은총의 역사다. 죽을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오신 생명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축하한다. 창조 이래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이란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으랴!

인생에게 최대의 적은 죽음이다. 가난이 아니다. 고생이 아니다. 질병도 아니다. 그것은 죽음이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말기 때문이다.

키엘케골은 인간의 생애를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존재”라고 정의하였다. 하이데거는 인생을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그래서 다섯 가지 명제를 제

시하였다. 그것은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른다. 죽음은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다. 죽음은 가장 정확하다. 죽음은 결코 반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한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의 자연스러운 정의라고 하겠다.

그러나 2000여 년 전에 이 땅위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영원한 적인 그 죽음을 생명의 은총으로 바꿔 놓으시고 인류의 구주가 되신 것이다. 생명의 구주로 오신 주님은 그를 믿는 모든 크리스천의 구주가 되신다.

베다니 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더니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 나왔다.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제약도, 과학자도, 부자도, 의학자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 꿇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인생의 영원한 적인 죽음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정복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개가를 불렀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가 부르는 생명의 개가이다.

이 부활의 계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속에 약동하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부활 생명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자!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자!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의 복음을 온 누리에 힘껏 증거하자!

###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부활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



3면

부활절설교 권태진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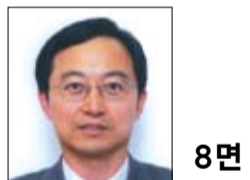
5면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 한 영혼 살리기 말씀축제

주제: 더 큰 일을 보리라 (요 1:50)



강사 이정근 목사  
유니온교회 원로목사  
미주성결교단 총회장 역임  
미주성결대 총장 역임

- 일시: 4월 14일(목) 저녁 7시 30분  
15일(금)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16일(토)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17일(주) 오전 8시 30분, 11시
- 장소: **미주평안교회** (Vermont + 2가)



# 미주평안교회

담임 임승진 목사 T.213-381-2202 F.213-381-2535 www.mpcla.org  
170 Bimini Place. Los Angeles CA 90004



# 부활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

## '2016 3월 27일 부활주일...복음의 핵심 진리 되새겨야'



###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디스토피아"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바둑은 하나의 예술이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 창조하는 과정이다. 흑백 모두 실수 없는 명국을 두는 게 바둑인생의 목표이다."라고 말한 금세기 바둑 최고의 고수, 이세돌 9단이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lpha Go와의 맞대결에서 3연패 후, 드디어 1승을 거두었다. "과학에 대한 인간 승리"를 외치며 세계가 술렁거렸다. 이세돌 9단이 말한 대로라면 예술적 상상력이 과학적 데이터를 이긴 것이다. 그러나 알고리즘이 이미 3승했고 겨우 한번 내어준 셈이니 약속한 대로라면, 5관3승으로 이미 알고리즘이 이긴 셈이다. 그런데도 이세돌을 향한 인간 승리에 대한 찬사는 데이터를 앞세운 기계 문명 앞에 초라한 인간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저로운 격려로 보여진다. 바둑은 보통 10의 170승의 경우의 수, 즉 우주에 존재하는 일자의 수보다 더한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알고리즘은 기보 16만개와 3천만 개의 착점 자료를 분석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데이터화하여 인류 최고의 고수를 아주 손쉽게 무너뜨리고 있는 데까지 발전하고 있다. 과학문명은 이미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간 복제 가능성을 넘어 인공지능까지 개발하여 인류문명의 미래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AI 포비아에 사로잡히게 하고 있다.

영국의 Financial Times에 의하면, 2040년이 되면 인류의 지능 수준과 비슷한 인공지능(AI)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자들의 최신 전망을 소개했다. 물론 긍정적인 면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나 질병 치료부터 인간 노동력 절감까지 인류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인공지능(AI)이 유익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역사에 나타나는 과학의 발전이 인류문명에 끼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았다는 사실을 1,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다양한 전쟁사는 증거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타락한 인간 심성에 근거한 인류문명의 발전은 곧 문명의 멸망을 앞당긴다는 사실이 성경적 조망이다. 창세기의 에덴동산을 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였고, 그 결과는 문명의 발전이 아니라 낙원에서 추방이었다. 바벨의 문명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제거하고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흠여짐을 면하자"고 하면서 하늘에까지 닿고자 했다. 오, 이 놀라운 에로스적 인간욕망의 상승을 보라!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리는 인간복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인공지능까지 낳게 되는 것이다.

벌써부터 AI의 급속적인 학습능력에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자들이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유토피아의 세계를 꿈꾸기도 모른다. 실제로 한국 연구진들이 주식시장을 분석하고 예측해 수익을 올리는 인공지능을 개발 중이라고 한다. 이미 구글 회사에서는 무인자동차를 캘리포니아 주에서 벌써 100만 마일 시험 운행 중에 있고 텍사스 주로 확대하려고 한다. 그러나 혹 사악한 마음으로 해킹 조작이라든가 혹은 요즘같이 빈발한 테러에 이용된다면 이는 참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AI 전문가들은 인간 두뇌를 분해해 모방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곧 윤리문제가 대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측면을 이미 간파한,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도 "보드게임은 아무것도 아니고 AI가 궁극적으로 인간 모두를 능가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는 날은 곧 인류의 재앙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기가 테슬라 창업자 엘론 머스크 역시, "해보다 위험하며 악마를 불러내는 것"이라 말한다. 우리는 AI의 미래의 문제를 예측하기보다, 좀 더 근원적으로 AI를 다루는 인간의 원죄인 욕망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결국 과학문명의 미래는 인간학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죄의 속성아래 놓인 인간의 구속이 전제되지 않는 한 과학문명의 발달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것이다.

쥘 베른의 상상력이 가득한 소설 '달나라 탐험'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이미 한 세기 전에 나왔다. 인공지능의 미래는 이제 더 이상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과학의 발전이 곧 인류문명의 발전이라고 믿는 터무니없는 신앙에서 깨어야 한다. 오스 기니스(Os Guinness)가 말하는 대로 인류문명이 에로스적 헛된 인간 욕망의 길에서 속히 벗어나, 아가페적 위대한 사랑의 품으로 돌아설 때에 만이 진정한 구원과 소망이 있다. 하나님을 제거한 인공지능의 과학 문명의 미래는 유토피아(utopia)가 아니라 디스토피아(dystopia, 나쁜 곳)가 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 생명의 복음 선포가 뜨겁게 선포되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는다.

johnjdj@yahoo.com

부활은 예수에게 있어서 그의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 계시된 하나님의 사건이요, 인류와 역사에 있어서는 새 기원이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사람의 승리요, 인간과 그 역사에 있어서는 구원의 은총이며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요,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인간과 역사가 하나님께 연결돼 영원한 생명의 실체로서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고 또 우리에게 그 날을 향해 정진해 가게 됐다.

"복음"은 그 계시의 증언이며, 교회는 그 증언의 가시적 실체로서 세상 한복판에 서 있다. 그래서 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부활의 승리는 역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부활의 승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대속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부활의 승리 축제에 도취하는 기독교는 변영의 종교와 기복종교에 다를 바 없다. 과정의 진통보다는 결과의 열매만 따먹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겹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능하시면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그러나 곧이어 아버지의 뜻

도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세상 안에서, 세상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 자체의 삶을 통해 증거 해야 한다. 교회가 있는 것은 그곳과 그 때가 죽음에서 삶으로 바뀌어야 하고 그 사회, 그 역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약동을 보게 해야 한다. 죽음을 거쳐 부활을 얻은 기독교는 무서운 종교다. 그 복음이 전달된 땅, 사람, 그리고 역사는 거기서 새 생명의 활기가 천지를 진동시킨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다. 예수는 죽음을 선택하려 하지 않았었다. 그저 죽음에 대해 죽으셨다. 죽음으로서 죽음을 이기셨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죽어야 한다. 나를 묶고 있는 저 주스런 죄와 죽음, 인생의

죽고 영광스런 소망으로 일어설 때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파괴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어떤 고통과 절망도 다 이겨낼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그 죽음의 상황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고후 4:10).

### 예수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류역사의 새 기원 이뤄 교회(공동체)는 세상에서 삶 통해 복음(예수그리스도) 증거 해야

대로 하실 것을 기도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으며 예수는 이 고난의 잔, 십자가를 저야했다. 이는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인간들의 죄와 악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였다. 오로지 인류 역사에 나타난 유일한 의인인 하나님의 아들만이 십자가에서 인류가 저지른 지금까지의 죄와 앞으로 지을 죄 모두를 대속하기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몸의 고통 속에서 인격적 멸시와 학대를 받으시고 그의 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을 당하셨다. 이 수난절의 고난은 단지 종교적 경건을 넘어서서 오늘날 우리 지구촌 인류들이 당하는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 사실적 증시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때문에 인간의 죄와 세상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진정한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깊은 체험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대한 깊은 체험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한갓 자연종교와 일치되는 기복 종교일 뿐이다. 기복종교는 자신의 헌신과 희생보다는 신령에게 제물을 드려서 신을 감동시켜서 신령으로부터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종교이다. 여기에는 철저한 현세의 번영과 성공주의가 작용한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헌신과 자기희생의 윤리가 없다. 공동체의 윤리가 없고 오로지 자신의 성공과 번영과 안일이 지고의 목표다.

'2016년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탄과 놀라움을 일깨워야만 한다. 우리 타락한 본성의 저주는 어떤 진리를 보고 전율해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둔하고 무뎠어진다. 진리의 객관적 실체는 그대로지만, 우리 마음이 변해 둔해진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한다.

모든 절망과 고통을 인간적인 노력과 수단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고 다시 부활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열려진 영광의 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남으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과거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며, 절망에 대해

결론으로, 주님과 함께 이기적 '자아'가 온전히 죽고 새롭게 다시 산다면, 나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했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이 부활의 영광이 지구촌 곳곳에 있어야 한다. 가정과 이웃 가운데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한다.

(편집부)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p><b>L.A. Office</b>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 (323) 665-0009(대) / (323) 665-9025(광고국) · Fax: (323) 665-0056(편집국) / (323) 665-0046(광고국) · E-mail: la@chpress.net</p>	<p><b>N.Y. Office</b>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 (718) 886-4400(대) / (718) 886-4424(편집국) · Fax: (718) 886-0074(대) · E-mail: ny@chpress.net</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입니다.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http://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USED) OPE ID: 03528300, [www.ope.ed.gov/accreditation](http://www.ope.ed.gov/accred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 부·활·절·설·교

##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라

(눅24:1-12)

권태진 목사 (군포제일교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최고의 걸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2:7).

흙을 재료 삼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습니다. 짐승에게는 생령을 불어넣지 않았으나 사람에게에는 생령을 주셨고 가장 살기좋은 에덴을 창설하여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창2:8).

특별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에는 누림과 의무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동산의 모든 과실을 허락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습니다.

순종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누림도 사라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에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사망의 지배 아래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그 값을 치러야 생령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충족시켰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십니다.

최는 제철공장 용광로 속에서 녹고, 금은 불로 제련되어 순도를 유지하고, 씨앗은 땅 속에서 썩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속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복 받는 디아스포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요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구약에 에스겔 꿈짜기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겔37:4b-5).

여호와와 권능이 임하여 에스겔을 데리고 뼈가 가득한 꿈짜기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한 후 마른 뼈들에게 대언했습니다. 에스겔이 순종하니 뼈가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겨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큰 능력의 하나님이 무죄한 아들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양으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려냈습니다. 박해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것이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박해자들의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주님의 몸

에 향유를 부러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눅24:4-6).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온전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2.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었던 예수님을 기억한 이들은 열정과 담력을 가지고 주일 새벽, 무덤에 찾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어머니들은 나약해 보이지만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지켜냅니다. 힘이 있어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두려움을 이기고 무덤에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있으면 바울 사도처럼 박해와 죽음도 피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물질도 초월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삼백 데나리온의 옥합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사흘 된 나사로를 통해 부활의 가능성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바로 동인 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요11:43-44).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인들은 이를 보고 믿었고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여인들에게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눅24:11). 너무 큰 슬픔에 빠지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일어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 가서 구부러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라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눅24:12).

새 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장합니다. 천국시민의 위대함

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성취와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에 있습니다.

3. 주님의 부활은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은 믿는 자에게 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벧전3:21).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왔고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은혜를 임하심 같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삶을 운택하게 하심을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눅24:36-39).

평강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구원을 믿고 평강이 채워지면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서도 감사의 노래

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들더라”(행16:23-25).

분노와 좌절과 원망의 장소가 기도와 찬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가지게 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도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눅24:39).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만질 수 있는 상태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난의 상처를 가진 육체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지난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지 말고 회개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

갈 바랍니다. 세계교회는 주 안에 모두 신령한 가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에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을 받고 세계로 복음을 전하라 흠어진 제자들처럼, 어디에 있든지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며 평강과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디아스포라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On Campus Courses 2016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7-11(3월 7 -11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14-18 (3월 14-18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Feb 1-5(2월 1-5일)  
DI 8500 Discerning God's Will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homas Stalter

###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Jan 11-Mar 4 (1월 11일-3월 4일)  
DI 8160 Trends in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Dr. Stephen Park

### Off-Campus Courses | Seoul, Korea

Feb 15-19(2월 15- 19일)  
DI 8080 Modern Trends in Global Mission(현대선교동향)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 버림받은 사람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 생애를 가만히 보면 두 번 버림을 받는다. 첫 번째의 버림받은 부모에게 받은 버림이다. 물론 부모가 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가두어 둘 수 없기 때문에 갈대상자에 넣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버림받음이 모세 인생의 축복의 시작이었다. 만약에 모세가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았다면 그래서 부모가 그를 붙잡았다면 그는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는 모세가 자기 동족으로부터 받은 버림받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 그 동족끼리 싸우고 있어서 화해를 시킨다. 그런데 그 동족 형제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법관을 삼았는가? 어제는 애굽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는가? 하며 대든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바로가 알았겠는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애굽 사람은 이미 죽었으니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동족뿐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고발한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간다. 그렇게 모세는 두 번째 버림을 받는다. 그래서 그가 쫓겨간 곳, 버

림을 받아서 도망가 있는 그 광야가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장소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한두 번은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버림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요셉 같은 사람을 보시라! 가장 가까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런데 그 애굽이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곳이었고 형제들을 살려내고 민족을 구원해내는 자로 성숙하는 Turning point가 되었다. 예수님도 그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경험은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사 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다. 그 고통을 호소하셨던 일이다. 그러나 그 버림받음이 부활의 영광이 되며 만주의 주가 되는 축복의 현상이었다. 지난 과거에 버림받았던, 억울하고 서러워서 견딜 수 없었던 지난 경험들이 여러분에게는 없는가?

아니 지금도 아픈 상처를 그대로 가슴에 안은 채 이 거친 광야 같은 인생길을 홀로 지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 보시라! 모세가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큼 위대해진 것은 애굽 궁중에 있을 때가 아니다. 버림받아 광야에 있을 때였다. 하나님이 모세가 애굽 궁중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가르치셔서 위대한 사람을 만드신 것이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배우는 장소였다. 사실 우리는 누가 황량한 광야, 사람이 없는 곳, 외로운 곳, 다 싫어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가득 찬 카페를 좋아한다. 화려한 카지노 동네, 이 라스베가스는 그래서 언제나 북적거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황량한 광야에서 불러내신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셨다.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부르신다. 신명기 32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했다. 보시라!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는 너무 분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마음도 시간도 여유가 없었다. 나일강의 유람선에서나, 애굽의 화려한 궁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모세는 마음에 여유조차 없었다. 그런 모세를 광야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었다. 모세에게 버림받아 홀로 있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절호의 기회였다. 광야에 나온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말씀을 들으며 출애굽의 놀라운 지도자로 성숙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 그때 내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행전 7:31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40년이 차매 천사가 시내산 광야가 시나루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귀히 보고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모세가 주의 소리를 들었던 곳은 애굽 궁중이 아니었다. 모세의 생애 가운데 처음 주의 소리를 들었던 곳은 바로 광야였다. 보시라! 40년 동안 궁중에 있었지만 모세가 주의 음성을 들었던다는 말이 없다. 그러나 광야에 있을 때 비로소 주의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들려오는 것이다. 세례요한의 경우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빈들에서 듣는 것이다. 복3:2를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을 보면 이 광야출신들이 많다. 모세도, 다윗도, 세례요한도 다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우리 주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을 지냈다. 어떤 사람에게서도 정열이 광야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는데, 너무 바쁘게 살아서 하나님도 그를 만날 수 없어서 정열이 높혀놓고서야 그에게 말씀하시기도 한다. 평소에도 잘 들리지 않던 주님의 음성을 병원에서 들은 사람들이 많다. 병상에 누어있을 때 생명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란다. 어떤 사람이 실패가 광야일 수 있다. 사업의 실패, 인간관계의 실패, 가정의 실패, 직장생활의 실패, 이런 실패들을 통해서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이 사랑 하셔서 음성을 가까이 들려주시려고 그를 광야로 보내신다. 의로운

요셉도 13년이란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다. 애굽에 종살이를 했고 감옥에서도 지냈다. 그가 죄가 있어서였는가? 아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는 유혹을 극복한 사람이었다. 유혹을 극복했는데 들었던 곳이 감옥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셨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면 성도는 좁은 길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음성을 가까이 듣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Paul Grand 같은 사람은 나병환자를 치료했던 의사이다. 나병 환자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가? 고통인가? 아니다. 손이 문드러지고 코가 문드러져도 모른다. 왜냐하면 고통이 없기 때문이다. 나병환자에게 불었다.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인가 했더니 그 나병 환자가 이렇게 대답한다. “내게 고통을 주십시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없다. 그러나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일 수 있다. 그래서 Paul Brand는 “고통을 지어내신 하나님을 감사한다. 나는 하나님이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우리가 고통을 체험하지 않으면 환회를 체험하기도 어렵다” 했다. 광야를 통과해본 적이 없는 사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깊이를 말할 수 있겠는가?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광야를 지나시는 성도여러분!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찬스(Chance)가 온 것이다. 편안히 안주하려는 생각으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없다. 저를 결혼을 늦게 해서 30대 중반에야 아이를 얻었다. 얼마나 사랑스런

지! 아이가 아플 때면 속이 얼마나 아픈지! 손에 일도 안 잡혔다. 그런데 장모님이 와서는 “괜찮다! 다 크려고 그런다!” 그리고 가시는데 정말 서운했다. 그렇게 무심할 수 없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말이 맞다! 아이들을 보라! 감기나 치킨 박스를 얹고 나면 눈빛이 뻥뻥 반짝해지고 키도 훌쩍 커있다. 왜냐하면 고통이 사람을 성숙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은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타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내가 이만하면 다 되었다고 목에 힘이 들어갈 때 타락하기 시작한다. 남자가 여자나 배우르고 등 따듯하면 위험한 순간이 다가온다. 저는 벌써 30년이 넘는 이민 교회를 섬기고 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어려울 때에는 두 부부 두 손 꼭 잡고 서로 위로하면서 마음은 굳게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매달리며 열심히 산다. 그러다가 집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여유가 생기는 순간부터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어느 덧 탈선의 길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했다. 하나님이 축복해주시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스스로 주의 일에 동참하고, 고통 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십자가를 선택해야 하라는 말씀이다. 힘들고 고달픈 때, 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로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고 말했다. 지금 고통의 광야에 버림받은 것처럼 지금 힘드신 분 있는가? 지금 여러분이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광야는 틀림 없이 여러분에게 삶의 차원을 높이고 여러분 인격을 성숙시키는 축복의 장소가 될 것이다. revpetergang@hotmail.com

## 변화하는 아프간... “날아라, 아프간 여성들이여!”

### 뉴스위크, ‘아프간 스타’ 참가 여성아이들이 불붙인 여권운동 소개

밴드가 라틴식 리듬 연주를 시작했다. 아프가니스탄의 TV 시청자는 사하르 아리안(Sahar Arian, 23)의 윤곽만 볼 수 있었다. 무대에 주저앉은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어둠 속에서 노래하기 시작했다. 페르시아어로 구슬픈 가사가 흘러나왔다. “시인은 내 몸을 시적으로만 봐/내가 영혼을 드러내면 그들은 나를 비웃어...”

지난 1월 말 아프간인 수백만 명이 ‘아메리칸 아이돌’을 뺀차마킹한 인기 높은 ‘아프간 스타’에서 아리안(여성 참가자는 그녀를 포함해 2명뿐이었다)의 공연을 지켜봤다. 조명이 서서히 그녀를 비추자 결코 평범한 공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건 일종의 시위였다. 입고 있던 푸른 부르카를 벗어 구타당한 모습으로 분장한 아리안의 얼굴이 드러났다. 코 아래로 핏빛 붉은 물감이 흘러내려 입술과 턱이 얼룩

졌다. 눈 주위는 부어오른 멍처럼 검게 칠했다. 아리안은 방청객의 휘파람 소리에 맞춰 무대에서 일어서면서 부르카를 완전히 벗어 던지고 열창했다. 아프간 사회에서 여성이 무시당하는 현실을 개탄하는 독창적이고 은유적인 가사였다. 노래가 끝나자 아리안은 눈물을 삼켰고 감동한 심사위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아리안은 카불의 녹음 스튜디오에서 ‘뉴스위크’에 “언젠가 이 문제에 관해 크게 외치고 싶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뉴스위크는 사하르 아리안이 노래하는 아프간 여성의 분노를 통해 점화된 여성 운동을 소개한다(AFGHAN IDOL THROWS OFF HER BURQA AND BELTS OUT DOMESTIC VIOLENCE PROTEST SONG).



은 여성이 대거 참가했다. 아티스트 쿠브라 카데미는 도발적인 공개 행위예측에서 거리의 성희롱에 항의하기 위해 가슴과 둔부를 과장한 방호복을 입고 거리를 걸었다. 여권운동가 사미라 하미디는 “여

달리에 이른다. 그러나 아프간의 젊은 여성 다수는 서방국 외교관이 후원하는 여권 관련 행사나 컨퍼런스에 자주 등장하는 운동가와 정치인에게 연대감을 느끼지 못한다. 대학

나도 목소리를 낼 용기가 생겼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아마드 슈자 연구원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주 새로운 현상인 예술 시위는 소셜미디어나 방송에서 훨씬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아리안 같은 공연은 강한 메시지를 계속 전파해 새로운 계층까지 미칠 수 있다.”

아리안의 공연은 온라인에서 급속히 확산되면서 칭찬과 비난을 동시에 불렀다. 가계 집원인 오마르 하지리(25)는 친구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뒤 유튜브에서 아리안의 동영상에 봤다. 그는 “그녀가 우리 사회 여성의 고통과 문제를 대변한 점은 훌륭하지만 이슬람에 적합한 방식은 아니다”고 말했다.

젊은 아프간 남성 대다수가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그들은 아리안이 여성의 고통을 제기하는 건 자유라고 말하면서도 그녀가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것과 의상에는 거부감을 갖는다. 사실 그녀는 바닥에 닿는 드레스와 팔의 4분의 3을 가리는 소매, 느슨한 검은 히잡을 착용했는데도 말이다.

아리안은 ‘아프간 스타’ 공연 후 익명의 위협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나도 안다. 난 단지 여성의 고통을 표현하고 싶을 뿐이다.”

아리안은 자신이 정치적 아티스트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공연은 여권운동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여권운동가 하미디는 “아프가니스탄의 문제는 너무도 많아 말리크자다의 실패처럼 충격적인 사건도 쉽게 잊혀진다”고 말했다. “아리안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여권운동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줬다. ‘아프간 스타’는 시청률이 매우 높다. 심사위원들도 큰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청자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

아리안은 2월 말 진행된 ‘아프간 스타’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성을 위해 계속 노래하겠다고 다짐했다. 여권을 다룬 노래 2곡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아리안은 “하나의 ‘석살’이다”고 말했다. “다른 하나는 여성에게 전하는 내 메시지 ‘날아라!’다.”

유엔은 아프간 여성의 87%가 육체적·성적·심리적 폭력에 시달리고,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당한다고 추정했다. 대다수 아프간 여성은 가정의 엄격한 통제 아래 살아간다. 심지어 일부 지역사회는 성차별에 따른 끔찍한 폭력을 용인한다. 그런 관습에 도전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여권을 옹호하는 운동가와 의원들은 자주 살해협박을 받는다. 2014년 여권운동가인 슈크리아 바라카자이 의원은 암살 기도에서 살아남았지만 다른 3명은 살해됐다. ‘아프간 스타’의 여성 참가자도 반항아로 낙인찍힌다. 이슬람식의 상을 입어도 마찬가지다. 15년 전 탈레반은 거의 모든 형태의 음악을 불법화하고 여성이 보호자 없이 외출하는 것을 금했다. 따라서 아리안이 그날 밤 무대에 혼자 섰을 때 그녀의 공연은 돌출 행동으로 인식됐다.

꾸지 않는 삶을 산다. 그녀는 카불에서 가족 없이 혼자 지낸다. 처음엔 이란에서, 그 다음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성장했다. 두 나라 모두 아프가니스탄보다 여성의 사회적 자유가 더 많다. 그러나 아리안의 부모는 고국의 전통적 가치를 따랐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음악 공부를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도 아리안은 폴레 재즈와 팝, 오페라 레슨을 받았다. 아버지에게 듣기 싫어 감옥이 됐다고 그녀는 돌이켰다. 아리안은 “6개월 뒤 아프가니스탄으로 도

살해됐다. 고통당하는 그녀의 모습이 스마트폰 카메라에 찍혀 온라인으로 널리 퍼지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여권운동에 불을 지폈다. 그녀의 결백이 드러나자 아프간 여성은 격분하며 전례 없는 규모로 시위를 벌였다.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얼굴에 붉은 물감을 칠하고 잔혹행위를 소리 높여 규탄하며 눈물을 흘렸다. 수십 명이 걸친 부당한 대우와 불의를 향한 집단적인 분노의 표출이었다. 말리크자다의 살해 이후 아프간

## 아프간 여성 87%가 육체적·성적·심리적 폭력, 강제결혼 당해 여권옹호 운동가/의원 살해 협박...말리크자다 피살후 저항시작

한 여성인 가수 아리어나 사이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리안을 칭찬했다. 사이드는 뉴스위크에 “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리안 같은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아리안은 “난 늑대 우리 속의 작은 양이었지만 두렵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리안은 아프간 여성이 거의 쫓

망쳐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가수가 되려는 나를 온 가족이 미워한 게 내 음악에 영감을 줬다. 그 뒤 파르룬다 말리크자다에게 일어난 일을 목격했다. 나와 아프간 여성 모두의 분노를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지난해 3월 젊은 아프간 여성 파르룬다 말리크자다는 코란을 불태웠다는 누명을 쓰고 카불 도심에서 남자들에게 고문당한 뒤 잔혹하게

여성은 이전에 볼 수 없던 식으로 성차별에 따른 폭력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아리안의 공연 전 여배우 리나 알람은 말리크자다가 살해된 곳 부근에서 그 사건을 공개 언급으로 재연했다. 장례식에선 여성들이 전통을 무시하고 남자들의 말리크자다 관 운구를 거부했다.

지난해 11월 카불에서 로크사라는 여성의 석살(돌로 쳐 죽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을 때도 젊

성 폭력에 관한 공개 토의가 절정에 이르른 듯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거의 매주 여성을 향한 사악한 공격이 언론에 보도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 아내의 코를 벤 남편, 석살 등. 언론 보도는 그런 폭력이 얼마나 나쁜지와 말할 뿐 아니라 여성과 지역사회가 그런 범죄를 더 많이 신고한다는 긍정적인 발전이라는 뜻이다. “이제 여성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서 누

생 가장 아리아(18)는 “주요 의원인 그 여성들은 호화생활을 하고 언제든 해외로 나갈 수 있다”며,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그들이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친구 무랄 사키(21)도 동의했다. “아리안의 공연은 우리에게 매우 신선했다. 그녀는 모든 여성의 고통을 노래한다. 나는 아직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아리안 덕분에



**알파고와 인공지능 프로그램**  
최근의 언론매체에서 연일 가장 큰 관심이 된 일이 '알파고(AlphaGo)-인공지능'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는 말들로 무성한 언론의 지나친 관심 탓인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소리소문없이 번져감을 느끼게 됩니다. 알파고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니, 카이스트의 오준호 교수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뉴럴네트워크, 즉 신경회로망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Deep Learning) 모델이 대표적이다. 이 방식을 사용해 바둑을 두는 기계가 알파고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만든 기계가, 기계의 원주인이 하는 일들을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인간의 초고도 문명능

상이 아닌 이러한 복잡다변한 기계문명의 현실에 대해 어떤 분석과 전망을 말하기보다, 묵회자로서 느껴지는 단상을 적어볼까 합니다. 혹자는 인간이 스스로의 지적능력을 더 강력하게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까지 만든다면, 인간의 운명이란 것은 마치 불나방이 불속으로 가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심각한 비유를 말합니다. 마치 처음에는 불빛과 따스함이 좋았다가 결국 자기자기가 그것에 죽게 된다는 것이죠. 바둑이라는 오락의 흥행으로 위험성을 감추고 있을 따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공상영화에 처처럼 나중에는 기계가 기계를 설계하고 만드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인간은 발발레가 되어서 모두 무능력자가 되거나 기계가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드는

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똑같이 보려한 이래로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멀리하려 하였던 역사가 증명합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도전한 결과는 실패와 흠어짐과 아픔으로 끝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도전해서는 안되고 도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허락된 모든 과학 기술의 문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도구로서 오직 그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선히 이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책무일 따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인생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안에 서만이 인간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기계문명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다시 얻는 결론은, 일말의 두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기계는 기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인간의 고뇌-윤리적 판단과 정서와 같은 절대로 기계가 범접할 수 없는 존귀한 영역이 인생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들의 힘겹고 외로운 대국에 밤도 제대로 못 드셨다."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국에서 3연패 뒤 값진 첫 승을 거두면서 그 어머니가 자식을 보

창조세계의 주도권은 하나님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인공지능이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예수를 믿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도 타락하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지요? 이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요? 성경의 구절을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에서 김

**A:**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 신학과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 신학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학의 차이를 떠나서 성경을 통하여 그 답을 찾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의 견인교리에 근거하여 한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안에서 택하여 예정하셨기에 설령 우리가 약해져서 죄 짓고 타락하여도 하나님은 결국은 회개 시키어 끝까지 그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로교 칼빈주의에서는 성도의 견인 교리(Perseverance of the Saint)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인해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을 얻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하셨기에(롬3장)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빌6:1, 히12:2, 롬5:1; 8:35,39; 10:9-10, 요6:39과  
딤후1:19-20, 히6:4-6 함께 살펴야

구원을 반드시 성취시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여러 곳에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빌1: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주님을 만나는 날)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것은 한번 받은 구원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12:2절은 믿음의 주요(참지자) 또 온전케 하시는 이(성취자)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롬 8:35, 39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6: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롬10:9-10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말고 화평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롬5:1).

그러나 성경은 분명 타락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등을 돌리고 계속 타락하여 거짓과 불의의 악한 길을 고집하며 간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파선을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딤후1장 19-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히브리서 6:4-6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풀러신 학교의 김세윤 박사는 그의 책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에서 이 두 가지를 성경이 다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상반된 긴장을 의식하는 가운데 함께 견지하는 것이 건전한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간사 제자교회)



**알파고(AlphaGo) 현상에 대한 短想**

- 기계문명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

력을 기능화 시킨 첨단 복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컴퓨터, 뇌과학을 모두 섭렵한 영국의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창업한 CEO 허사비스의 작품인데, 스스로 표현하기를 21세기의 아폴로가 달에 착륙한 것과 같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파고는 바둑만을 위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흥행성의 측면에서 인간과 기계의 바둑 대결로 성공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이세돌 9단이라는 세계최강의 바둑기사를 내리 3패시키며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물론 알파고의 승리에는 여러 변인들이 존재합니다. 1200대의 컴퓨터의 클러스터로 연결된 계산기와 주산기(?) 정도로 표현되는 감정과 생각을 가진 인간의 싸움이었기에 원천적으로 불공정 게임이었다고도 말합니다. 마치 정답을 알고 있는 선생님과 이제 공식을 배우고 응용문제에 적용해야 하는 학생에 비교할 수 있는 일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뒤에 1승을 거두게 되지만, 스스로 표현하기에 '자신의 패배가 인간의 패배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말이지만, 왠지 모를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에 소모품이나 노예처럼 사용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기계는 기계일 따름입니다. 기계는 기계의 원제작자에 의해 끊임없이 주입되는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임을 결정될 따름이고, 결국 그것을 움직이는 것도 사람이며, 그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안에서 우리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던지 바닷물이 흥용하고 뛰놀던지 조금의 변동 없이 없이(시46:1), 기계는 기계일 따름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계는 계속 진화하며, 편리함을 추구할 것 물론, 미래 세계가운데 인간의 지능에 의한 인공적인 창조물들은 계속해서 진화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것처럼 계속적인 진화를 거듭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한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결국에는 허무와 비참함속에 막을 내렸던 것을 성경을 통해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문명은 계속 진화할 것이고, 우리 세대에는 아닐지라도 앞으로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인공지능의 산물들을 두고서 마치 War-Game 같은 대리 전쟁놀이가 현실화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과학기술 문명은 더욱 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되고 발달되고 더 약하게 사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인류의 정신적인 영역 문명은 직강하듯 퇴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인간의 삶은 기술문명의 발달로 대단히 편리해지는 대신, 그 영혼은 점점 더 불확실함의 시대가운데 결코 평안을 맛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최첨단 고등기술 앞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결코 편리해지는 것과 평안해지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행할 일들을 일정부분 대체한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더욱 더 하나님 외에는 평안의 주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지능을 초월하는 순간부터 인류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은 사실 그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말의 날과 종말의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날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갈 것이며, 그 징조는 이미 인공지능의 문제를 넘어서서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기억한다면, 그러한 가능한 예측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리라 봅니다. 다만, 인간이 인공지능에 의해 지배되지는 않을지라도, 오히려 염려할 것은 기계가 지배하는 세계와의 전쟁이 아닌 인간 스스로 문화와 문명에 종속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현실화되어 있는 인터넷 문명에 대한 문화충격현상만 생각해도 충분히 그 가능성을 짐작하게 합니다. 인공지능은 상대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기계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스스로 문명에 종속되어 노예화되어지는 것은 스스로 싸우기를 포기하고 무장해제당한 군사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면서 마음고생을 하면서 밤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마음고생을 하던 가족도 한시름 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와 가족은 "동생이 연속으로 패했지만 한 번도 내색을 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면서 속깊은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의 존귀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인간형상의 회복**  
모든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요14:6)고 말씀합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잠시 알파고 현상으로 인해, 미래세계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과 판단이 우리의 마음을 생동하게 하였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미래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믿고, 이 세상의 편리함에 익숙하여 기계문명에 종속되지 않는 가운데, 그리스도안에서 평안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의 회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davidnjeon@yahoo.com

**알파고와 자녀학대 사건**  
글을 마무리하면서, 기계문명의 근본목적과 관련해서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두가지 상이한 소식이 동시에 전파를 탔습니다.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컴퓨터와 바둑의 고수가 한판 바둑전쟁을 벌였고 기계가 패자세로 승리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최근 한국에서 7살 난 아이를 스무 시간 동안 목욕탕에 가둔 채 방치하여 죽인 사건과 독일 유행까지 한 목사 아버지가 딸을 죽여 1년간 집안에 방치했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동시에 같은 화면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보도가 내용과 주제는 다르지만, 이 복잡한 기계문명시대에 시사 하는 바가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안에서 누리는 평안 기계문명을 이루어 가는 인간의 목적은 편안함과 편리함입니다. 문명은 빛의 속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인간의 근본본성은 더욱 부패와 타락속에 휘말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속에 점점 평안은 사라지고 세상은 더한 부패와 타락 속에 빠져들다.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구호로 이 땅에서 유투피아의 편안함을 찾고 구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 분명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극도의 과학문명에 대한 의존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처럼 맹신하는 기계문명의

**인공지능과 미래적 기대감**  
연일 언론의 내용들은 인공지능의 문제를 이제 미래로 거침없이 끌고 갑니다. 바둑에서 보여준 정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곧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음에 더욱 초점을 맞추면서 주 최측인 구글을 기쁘게 합니다. 이에 덩달아 구글측에서도 인공지능을 의료 분야와 가정용 로봇 등에 적용할 계획임을 밝히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서서히 대체 혹은 더 나아가 지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각종 범죄적인 데이터들을 적절히 해석해서 가장 합리적인 답을 얻는 법률 관련 일들이 기계로 대체될 것을 말하기도 하고, 자료와 확률게임이라고 하는 주식투자의 문제에 있어서도 윤택하게 기계를 의지하게 되고, 인공지능이 후에도 육체의 병을 가진 환자들을 문진하고, 약을 제조할 수 있는 것도 실수없이 할 것이라는 예측을 급급하게 쏟아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람의 신체 장기마저도, 인공제품을 사용해서 교환수급이 가능할 것인데, 그 부품의 전체회로를 작동하고 움직이는 내용까지도 이제 인공지능이 대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만든 피조물-기계를 가지고서 이를 잘 컨트롤함으로써 신의 창조영역까지 도전하는 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는 기계일 뿐, 두려움의 대

**담임목사 청빙공고**

플로리다주 탬파에 소재한 새빛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청빙대상:**

- 연령: 40~49세 미 남침례교단 정규신학대학원 졸업자
- 신분: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 언어: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신 분

**제출요령:**

- 제출마감: 2016년 3월31일 입니다.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가족소개포함)
- 방법: 이메일 NLCCCommittee@gmail.com

**일정계획:**

- 3월말: 신청서류 제출마감
- \* 1차 서류심사 후 추가서류와 자료 요청
- 4월중: 온라인 인터뷰 및 추가 정보 요청
- 4월말: 최종 후보 명단을 선정
- 5월초: 최종 후보 2차 인터뷰와 교회 방문
- 5월말: 청빙결과 발표
- \* 일정계획은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회주소: 6018 N HIGHLAND AVE, TAMPA, FL 33604  
홈페이지: WWW.KFBCTAMPA.ORG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두루와(DHURWA)**



**두루와** (Durwa 혹은 Parji로 알려짐)족은 인도의 대곤두(Gond)족의 소구림이다. 역사적으로 곤드족은 인도의 가장 중요한 토박이 종족이다. 1500년대 몇 대의 곤드 왕조와 힌두교주 같은 그들의 왕을 세웠다. 곤드족은 1592년 무슬림에 의해 정복당하여 모든 통치자의 능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종족은 행정적 인 변화에 잘 적응하지는 않았다.

오늘날 두루와 족은 바스타(Bastar) 지역의 중앙의 동부에 거주한다. 일부는 오리싸(Oriasa)지역 유입되었으며, 특히 인드라와티(Indrawati)강 남부에 몰려있다. 그들의 영토의 많은 지역은 강과 골짜기를 가로질러 낮가와 더불어 울창한 숲과 언덕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루와 족은 주변의 바트리(Bhatri) 족과 같은 상위 카스트(사회계층)에 의해 많이 흡수되어 왔다. 자신들의 모국어인 파르지(Parji)를 모두 잊어버리고 바트라족의 모국어인 바트리(Bhatri)를 대신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삶의 모습**

두루와 족의 대부분은 황소를 이용하여 논과 밭을 기경하고 곡식을 거두는 농사꾼들이다. 자신들이 사용할 농기구를 만들 수 없어 가까운 마을에서 신세를 지고 토기나 철기 또는 수레같은 보급품들은 주일마다 열리는 마을장터에서 구입한다.

두루와족은 동일 씨족 안에서 결혼하지 않는다. 두 가지 형태의 결혼이 있는데 커카(Curca)와 티카(Tika)가 있다. 커카 결혼은 신부의 대금을 지불하는 결혼이다. 티카 결혼은 이혼자 혹은 미망인이 상대가 높은 계층이나 혹은 낮은 계층과의 결혼할 때 발생한다.

두루와 족은 창문이 없는 흙벽과 초가지붕으로 만든 오두막 같이 작은 집에 살고 있다. 일부는 촌

락에서 친척들과 함께 기거한다. 마을은 여러 채의 집들이 한 줄로 작은 공간을 끼고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담소하고, 모임이나 일정한 행사를 거행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마을에 정착하기 위해 씨족을 이끌어 가는 족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두루와 족은 자신의 옷을 만들어 입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장식수와 의복은 외부에서 구입한다. 보통은 이리로 인해 이웃의 타 부족과 상호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교제가 정부와 사설 계약 인들에 의해 방해를 받아왔다.

**신앙**

두루와족은 100% 힌두교도이지만 부족마다 믿음이 다양하다. 수많은 힌두교 파들이 정령술, 배를 혼합하여 따르고 있다. 영혼의 불멸을 꼭 믿는 것은 아니지만

영혼이 한 사람의 입증과 더불어 한 육체에서 다른 육체로 환생한다고 믿고 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인간의 영혼이 그 사람이 생전에 선과 악을 행함에 따라서 동물 또는 인간의 몸으로 환생한다고 생각한다.

두루와족 사람들은 동물들, 새들, 나무들도 영혼이 있다고 믿고 있다. 물고기를 잘 잡게 해달라거나 풍요한 수확을 위해 비, 강, 물의 신에게 복을 빌기도 한다. 그들은 사람 등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고 고통스러운 모레나 흉자 등을 쏘아 환자가 죽음을 면하게 하는 라우(Rau) 신을 두려워하는데 죽음을 모면하기위해, 오직 의사만이 그것을 빼 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두루와족은 세 개의 세상이 있다고 믿는다. 땅은 인간과 초월적

인 존재가 사는 중간세계이고, 하늘 또는 상층세계는 하늘의 영혼은 하나님이나 사는 집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며 창조주이자 모든 만물 신위에 군림한다. 그들은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인간의 생활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신다. 세번째 세상은 지하의 세계 혹은 사마의 세계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두루와 족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된 기독교 자료가 전혀 없다. 현재 원주민 기독교 성도는 아주 소수만 알려져 있다. 지속적인 중보기도와 복음화를 위한 도구들을 사용하고 계속적인 선교 노력만이 원주민들로 하여금 가시적으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데 필요할 것입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이세돌 1승에 외신, "마침내 인간 승리..."**



인간 최고수 이세돌 9단이 구글의 인공지능 알고리즘과의 대국에서 3연패 끝에 1승을 거두자 외신들도 "마침내 인간이 승리했다"며 소식을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13일 열린 네 번째 대국에서 이세돌이 승리하자 "인간 바둑 챔피언이 3연패 끝에 마침내 인공지능을 이겼다"고 보도했다.

5번의 대국에서 먼저 3승을 거둔 알파고가 이미 전체 승리를 확정지었지만, 이세돌은 이날 첫 승리를 최소 1승은 거두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인간 바둑 기사로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켰다"고 통신은 평가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세계 바둑 챔피언이 4번째 대국에서 처음 알파고를 물리쳤다"며 "사실상 인류를 대표하는 33세의 최고수가 인공지능을 알파고를 상대로 세 번 내리진 다음날"이라고 전했다.

AFP통신은 "인간 바둑 챔피언이 슈퍼컴퓨터를 상대로 놀라운 승리를 거뒀다"며 "굴욕적인 3연패 끝에 거둔 첫 승리"라고 전했다. 이어 "5시간 가까이 이어진 조마조마한 시합 끝에 이세돌이 알파고를 물리쳤다"며 "이세돌은 초반에 고투했지만, 중반에 승기를 잡고, 마침내 알파고가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dpa 통신도 "인간이 마침내 구글 컴퓨터를 상대로 승리했다"며 "기계를 상대하는 인간을 위해 미약한 격려를 남겼다"고 평했다. 고전 게임인 바둑은 너무 복잡해서 기계가 익힐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이세돌은 대국에서 3연승 한 알파고의 승리는 컴퓨터 지능의 엄청난 발전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알파고가 5판 승부에서 이미 승리했지만, 이세돌의 첫 번째 승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버지는 이세돌이 4번째 대국에서 승리하면서 "최소한의 복수"를 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세 번째 대국이 끝난 뒤 "바둑 최고수 이세돌을 상대로 3연승함으로써 인공지능 연구에서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운 구글 딥마인드에 축하를 전한다"며 "우리는 흥미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관련평을 남기기도 했다.

**치매 예방 '7+긍정 사고'에 달렸다**



누구도 반기지 않는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신과학자가 나타났다. 미국 UCSF 대학 노인정신과학

실 데보라 반즈 교수와 영국 킹스칼리지 심리학과 샌드노트 강사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랜셋 뉴롤로지' 최근호에 "뇌신경세포를 죽이는 위험요인 일곱 가지만 물리쳐도 알츠하이머 발생 위험을 적게는 30%, 많게는 50% 가까이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한 것이다.

반즈 교수는 2011년 랜셋 뉴롤로지에 "치매 위험요인 일곱 가지만 없애면 전 세계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논문 발표해 큰 반향을 일으킨 정선과 의사다. 노트 강사는 지난해 여름 같은 잡지에 "일부 위험요인이 사람에 따라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도 알츠하이머 감소율이 최소 30%에 이를 것"이란 연구 결과를 내놓아 주목 받았다.

반즈 교수는 당뇨, 중년기 고혈압, 중년기 비만, 우울증, 운동부족, 흡연, 저학력 등 일곱 가지 위험요인이 미국 내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 원인의 54%, 전 세계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의 51%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곱 가지 위험요인을 모두 한꺼번에 없앨 수만 있다면 전 세계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51%는 사라진다는 뜻이다.

조심해야 할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인자 일곱 가지 중 첫 번째는 당뇨병이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알츠하이머 치매뿐 아니라 혈관성 치매도 잘 생긴다. 미국 성인의 9%가 당뇨병 고통 받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6%에게 당뇨병이 있다. 한국인 당뇨 유병률 역시 8-10%로 추정된다. 그런데 당뇨병을 갖고 있으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1.4배 증가한다.

두 번째는 중년기 고혈압이다. 미국인의 14%가 중년기에 고혈압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9%가 앓고 있다. 그런데 중년기에 고혈압이 있으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은 1.6배 증가한다. 고혈압이 있는 중장년층은 65세 이후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당장 혈압 조절에 들어가야 한다.

세 번째는 중년기 비만이다. 미국인의 13%가 중년기에 비만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3%가 중년기에 비만이 있다고 한다. 반즈 교수팀의 연구 결과 중년기에 비만이 있으면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 위험이 1.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는 우울증이다. 미국 성인의 19%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13%가 우울증이 있다고 한다. 연구 결과 우울증이 있으면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 위험이 1.9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증이 있으면 방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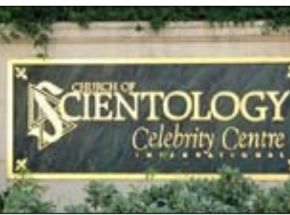
다섯 번째는 운동부족이다. 미국인 성인의 33%가 운동부족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18%가 운동부족이라고 한다. 신체활동 및 운동량이 부족하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1.8배 증가한다고 지적됐다.

여섯 번째는 흡연이다. 미국인 성인의 21%가 흡연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27%가 흡연을 한다고 한다. 흡연을 하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1.6배 증가한다.

일곱 번째는 저학력이다. 미국 성인의 13%가 저학력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40%가 저학력층이라고 한다. 알츠하이머는 저학력자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조사 결과 저학력인 사람은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고학력자에 비해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들 일곱 가지 위험요인만 잘 다스리면 알츠하이머 치매를 완전히 막을 수 있을까. 아니다. 예민한 성격과 게으른 성격, 그리고 냉소적인 성격이 치매 발생 위험을 각각 3배 증가시킨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다. 지금 당장 생활습관을 바꿔 일곱 가지 위험요인이 부르는 치매의 늪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가능한 한 밝고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야 한다.

**벨기에 범원 "사이언톨로지는 범죄 집단 아니다"**



벨기에 범원은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신종종교인 사이언톨로지는 범죄 집단이 아니라고 판사했다.

브뤼셀 형사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사이언톨로지 관계자 11명과 2개 관련 조직의 사기 및 강요 행위, 그리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을 모두 기각하고 검찰 측의 사이언톨로지 벨기에 지부와 유럽 본부 해체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브 레지몽 판사는 사이언톨로지에 대한 수사가 종교적 편견과 모호성 때문에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벨기에 사법 당국은 지난 20년간 사이언톨로지 교회가 사기와 신도들에 대한 협박, 불법 의료수술 등 범죄행위를 자행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사이언톨로지 측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54년 창설된 사이언톨로지는 톰 크루즈, 존 트라볼타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신봉하는 종교로 널리 알려졌다. 사이언톨로지가 유럽 각국에서 세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독일 등 몇몇 유럽 국가들은 사이언톨로

지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 독일 헌법수호청은 1997년부터 사이언톨로지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독일 대부분의 주 정부는 사이언톨로지의 조직과 활동의 비민주성을 이유로 사이언톨로지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독일서 난민범죄 증가 '용의자 국적 보도' 찬반 논란**

범죄 관련 기사를 다룰 때 용의자의 국적과 종교를 기술하면 안 된다는 보도준칙을 두고 독일 언론계가 갑론을박하고 있다.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9일 인쇄 매체의 자체감독기구 격인 독일언론협회가 기존 보도준칙을 유지하기로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언론협회가 1973년 마련한 준칙은 소수자 보호와 선입견 방지를 위해 국적과 종교의 보도금지를 원칙으로 삼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해당 사항을 보도할 수 있게끔 규정했다.

루츠 킬만스 언론협회장은 준칙이 표현의 자유를 막거나 보도활동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는 데에는 모두가 뜻을 같이하면서도 기술 여부의 최종 판단은 결국 편집자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유지 결정 전에는 보도준칙을 직업윤리의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자칫 국적과 종교를 전하는 것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독일에선 지난 연말 일어난 쾰른의 난민 집단 성범죄 사건 이후 이 준칙이 언론계 현장에서 내내 논쟁적 사안으로 남아있다고 도이체벨레는 지적했다. 당시 북아프리카계 용의자로 많이 거론됐지만, 매체들은 초기에 이를 다루지 않았거나 이후에도 자세하게 알리지 않아 '거짓언론'으로 비판받았다.

대중지 빌트의 타이트 코흐 수석에디터는 "준칙 적용은 언론 본신을 부채질할 뿐"이라고 했고, 작센주 일간지 제지제이처지움의 우베 페터리크 편집장은 독일인이든, 외국인인든 앞으로도 계속 국적을 기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터리크 편집장은 특히, 그런 내용을 쓰지 않으면 독자들은 용의자가 난민신청자라고 짐작하는 경향이 더 있다는 조사 결과도 들었다. 또한, 독일신문발행인연합은 전과가 배려 소셜미디어 특성을 예로 들며 언론의 보도 여부와 관계없이 국적과 연령 같은 정보는 제3의 매개로 이미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독일 언론계에서는 그동안 지지율을 끌어 올렸던 상대 후보를 헐뜯었던 공화당 경선 지지자의 모습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CNN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 토론회에는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와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존 케이지 오하이오 주지사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회보장과 외교 정책, 이민법, 이슬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격론을 벌였다.

먼저 트럼프는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슬람이 우리(미국)를 싫어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모든 이슬람교도를 의미하느냐는 진행자 제이크 태퍼의 물음에 트럼프는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자신은 "엄청난 증오"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대답했다.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선 후보들의 의견 충돌도 있었다. 크루즈와 루비오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적용을 보장하려는 현 정부 정책을 지지한 트럼프를 향해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루비오는 트럼프의 구상이 "말이 되지 않는 숫자"라며 사기 범죄자 등을 빼더라도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독일, 일본, 한국 등 군사적

지원을 하는 나라에서 돈을 빼 재원을 충당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며 특히 "한국과 북한의 경계에 2만8천명의 미군이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이어 미국이 지켜주는 현 상황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미국으로 부를 다시 가져올 협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선을 거듭할수록 트럼프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면서 그를 향한 공격이 많았다. 루비오는 트럼프를 겨냥해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 없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질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나는 차별적인 언어 사용을 피하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맞섰다.

트럼프는 또 자신이 대의원을 확보에서 선두를 달리는 점을 고려한 듯 "대의원을 가장 많이 확보한 후보가 승리한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지도부가 '아웃사이드인' 트럼프를 지지해야 한다는 명분에서 '중재 전당대회'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상황을 견제한 발언이었다.

공화당 지도부가 루비오를 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크루즈도 트럼프와 뜻을 같이했다. 크루즈는 대의원을 가장 많이 확보한 주자가 대신 후보가 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1989년 중국이 군을 동원해 진압한 '텐안먼(天安門) 사태' '폭동(riot)이라고 지칭해 구설을 오르기도 했다. 그는 과거 중국의 '힘 보여주기' 발언을 해명 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힘 있는 정부를 말한 것이었다. 중국 정부는 폭동을 진압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한 지도자'(strong leader)라고 말했던 것과 관련해선 "푸틴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강함이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후보들 간 '견제구'가 오가곤 했지만 이번 토론은 이전과 비교해 확실히 '톤 다운'된 양상으로 흘러갔다. 그간 토론에서 '히포크라테스' '추잡한 사람' 등 인신공격이 난무한 것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전 토론에서는 '성기 크기' 관련 발언까지 나오면서 토론이 도를 넘어섰다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당시 트럼프는 루비오가 최근 유세에서 트럼프를 겨냥해 '손가락을 밑을 밟을 수 없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면서 손을 들어주며 "이게 작아 보이냐"고 말한 뒤 "이게 작다면 다른 어떤가도 작을 것이고, 장담하는데 나는 문제 없다"고 말했다.

CNN은 "이번 토론에서는 인신공격이 사라졌다"며 "특히 평상시 시골벽적인 수사를 사용하던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톤 다운'하면서 토론에 임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실제로 지지자의 흑인 청년 폭행 등 공격적이며 논쟁적인 문제에 조용히 답하며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선 경선에서 승리를 거둬주는 트럼프가 '대선후보 모드'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흘러나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의 마니 헨더슨 기사는 토론의 승자와 관련한 물음에 트럼프를 꼽으면서 "(공격적인) '쇼맨'은 사라지고 '대선후보' 버전이 등장했다"고 평가했다.

**테레사 수녀, 9월 4일 성인 반열 오른다**

AFP 통신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15일 열린 교황청 시성(諡聖·가톨릭에서 성인품에 올리는 것)위원회 회의에서 테레사 수녀의 시성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시성식은 테레사 수녀가 선종한 날보다 하루 앞선 9월 4일 열린다. 시성식 장소는 인도 가톨릭의 영원대로 테레사 수녀가 활동하던 인도 콜카타에서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로마 바티칸에서 열릴 것이란 전망이 더 우세하다.

테레사 수녀 사후 6년 만인 2003년 시복식(성인전 단계인 복자(福者)로 추대하는 예식)이 개최됐을 당시 바티칸에는 30만명의 신자가 운집한 바 있다. 이번 시성식이 바티칸에서 열리게 된다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포한 자비의 대회년(2015년 12월 8일 ~2016년 11월 20일) 중 최고의 행사가 될 전망이다.

1910년 알바니아에서 태어난 테레사 수녀는 인도 국적을 얻어 1950년 인도 콜카타에 사랑의 선교회를 세운 뒤 현지 빈민들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를 펼쳤다. 그 공로로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97년 선종했다.





# 교회역시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55)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 1. 초대 교회 - 교리의 형성: 무엇을 믿는가? (9) - 테오도시우스 황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자연스런 일이다. 반드시 아직 생겨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거나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어느 정도라도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다.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지만, 다가오는 시간을 미리 엿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다. 특히 염려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더욱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과거의 역사를 배움으로 얻는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교로 선언한 것이다. 로마제국의 역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독교와 맞물려 있었다. 초대교회가 출발과 함께 핍박과 고난의 역사를 걸었던 역사적 배경에 절대적인 힘을 자랑하던 로마 많은 황제들의 황포가 있었다. 그들은 긴 세월 동안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핍박했다.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결단

화를 가져왔다. 로마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중단되었다. 교회가 황제의 보호를 받으며 안정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물론 많은 역사가들이 지적한대로, 콘스탄틴의 기독교 옹호는 순수하게 종교적인 것은 아니었다.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다. 313년 ‘밀라노 칙령’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나아가서 로마 교황을 통하여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는 더욱 믿을 수 없었던 일을 가능하게 한 디딤돌 같은 사건이었다. 380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날려버릴 만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다.

지만, 정적의 음모에 의하여 제거 당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테오도시우스는 부친으로부터 군인의 지혜와 용맹을 물려받았다. 야만족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후, 379년에 로마 제국의 동부지역을 통치하는 황제의 위치에 등극하였다.

380년 2월 27일,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발표한 ‘데살로니가 칙령’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우리가 베푸는 관대와 중용에 복종하는 모든 국가들이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전달한 종교에 대해 계속 신의를 선택한 것은 매우 흥미롭다. 로마제국이 국교로 선택한 로마교회의 정통성을 확인시키려는 의도였음에 틀림없다. 이미 그는 교부들의 글을 통하여 사도들의 신앙을

를 혼란하게 하였던 아리우스주의자에 대한 일격을 가하는 내용을 지니고 있었다. 테오도시우스는 자신의 신앙적 성향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복음의 교리에 근거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의 하나님 이시며 거룩한 삼위일체 안에서 동등한 권위를 지니고 있다. 이 교리를 따르는 자들은 ‘가톨릭 성도’임을 인정한다.” 그가 정통 신학을 추구하던 신학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해를 둘러싼 장시간의 논쟁이 종결될 수 있었다.

정통 교리를 따르는 자들을 ‘가톨릭 성도(Catholic Christian)’임을 인정한다는 대목이 무척 흥미롭다. 가톨릭(Catholic)은 ‘보편적, 일반적, 또는 널리 알려진’이란 뜻을 지닌 단어이다. 로마가톨릭(Roman Catholic)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테오도시우스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으면서, 자신이 통치하는 제국에 속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분명한 신앙 노선을 요구한 것이다. 그가 제시한 로마의 국교는 결코 넓은 의미에서의 기독교가 아니었다. 그는 아리우스주의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만일 이들의 주장을 따른다면, 성도의 자격이 부여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데살로니가 칙령’은 이단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먼저 신적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권한을 가지고 하늘의 뜻에 따라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11면으로 계속)

## 이단징계 확실한 ‘데살로니가칙령’ 발표 1년후 ‘콘스탄티노플신조’ 제정 불확실한 미래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 정하신 시간과 방법으로 인도

### ■ 380년에 생긴 일

380년,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소집되기 1년 전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동로마의 황제 테오도시우스(Flavius Theodosius, 347-395)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

한다는 것은 편안한 삶은 물론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불이익을 수용하는 일이었다.

313년,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다. 로마 황제 콘스탄틴의 회심의 열매로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었다. 로마의 실권자가 기독교에 대한 회유책은, 그 후 기독교 역사의 큰 변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견고히 세워진 순수한 신앙을 교회역사의 기초로 삼으려는 의도였음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방법을 정하신 것이 분명하

### ■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데살로니가 칙령’

380년,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것은 테오도시우스 황제이다.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였다. 그의 부친은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유능한 로마 군인으로 지휘관으로 임명되기도 하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 ■ 정통과 이단

‘데살로니가 칙령’이 ‘밀라노 칙령’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점이 바로 이것이다. 그는 복음으로 회심한 신앙인으로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독교에 접근한 것이 아니었다. 이 칙령은 오랜 시간 교회



## 아하 그렇구나! -성경의 압축과일 풀기 (26)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 잘라버려야 할 것은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과원지기이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놓았다. 그리고 과원지기에 그 과수원을 맡겼다. 가을이 되어서 과수원에 가 보았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 ‘내년에는 열리겠지?’ 그런데 그 다음 해에도 열매는 열리지 않았다. 그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였다. 주인은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다. 이때 과원지기가 사정을 한다. “주인이여 급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눅13:8). 찍어버리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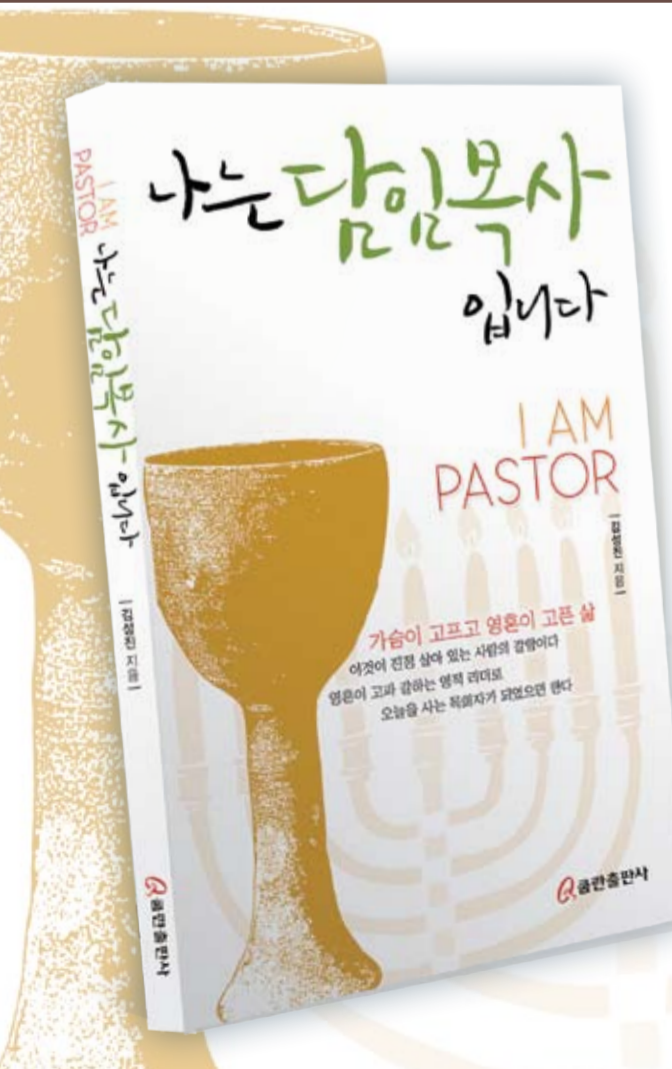
말이 또 어디 있겠는가? “곧장내 버려, 더 이상 기다릴 것 없어, 더 이상 바꿀 것 없어, 해고시켜버려, 그 사람 내보내, 그 사람 잘라버려, 미련 갖지 마, 할 만큼 하지 않았어? 더 이상 기다릴 것 없어, 잘라버려.”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주인은 3년째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3년이 된 나무일까? 아니다. 무화과는 심고 3년을 기다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율법은 어떤 나무를 심든 3년 동안은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어 있다. 4년째 되는 해

에 비로소 열매를 기다렸다. 그런데 없었다. 그 다음 해 5년째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올해 6년째가 된 것인데, 그래도 열매가 없는 것이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으니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보나마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니 잘라버리라는 것이다. 기대할 것이 없으니 잘라버리라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에 계속 미련을 갖고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논리가 세상의 논리 아닌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잘라버린다. 이윤

창출이 안되면 잘라버린다. 별로 기대할 것이 없으면 잘라버린다.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린다. 일을 잘 못하면 잘라버린다.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린다. 결과가 없으면 잘라버린다.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회사의 CEO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데 과원지기는 한 해만 더 유예 기간을 달라고 사정을 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6년이나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으니, 이 나무는 저주받은 나무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당장 잘라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 것은 그 나무 책임이 아니라 과원지기의 책임이 더 클 수도 있다. 잘 돌보아주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이 무화과나무는 포도원에 심

겨져 있었다. 아마 이 나무는 포도원에서 왕따를 당했을 지도 모른다. 과원지기는 포도에만 정신을 팔았을 것이다. 포도만 열심히 가꾸었을 것이다. 그러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가?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과원지기가 잘못된 것이다. 무화과나무를 잘라버릴 것이 아니라 과원지기를 잘라버려야 하는 것이다.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잘라버리라고 하자 과원지기가 이렇게 말했다. “주인이시여,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 꼭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자기가 잘 돌보아주지 않아서 거름을 주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본인이 잘 아고 있었다. 거름만 잘 주면 그 나무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했던 것이다.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를 먼저 살려야 한다. 나무를 살리려면 땅을 기름지게 해야 한다. 땅을 기름지게 하려면 거름을 주어야 한다. 거름을 주면 땅이 살아나게 되고, 땅이 살아나게 되면 나무가 살아나게 되고, 나무가 살아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면 그 나무는 잘라버리지 않아도 되게 된다. 그렇다. 거름이 나무를 살린다. 그러니까 이 과원지기가 열심히 거름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 나무는 사형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1년 선고 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1년 안에 이 나무를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 거름을 주겠다는 것이다. 거름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나무를 살리는 것은 거름이다. jinhee1004@yaho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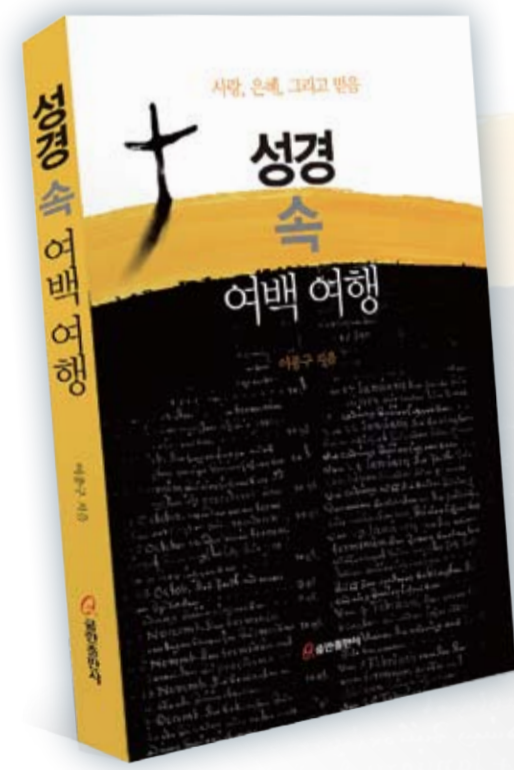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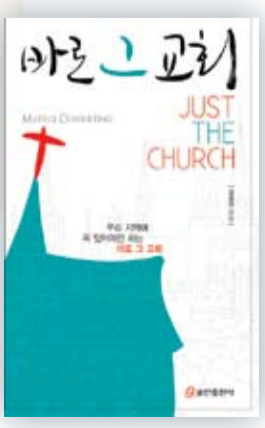


### 나는 담임목사입니다

‘나는 담임목사입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호소이며 담임목사다워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떤 담임목사여야 하는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영성과 비전과 방향과 영적 색깔이 결정된다. 이 책은 목회자의 본질에 근거를 두고 담임목사의 자세와 역할 그리고 담임목사 속에 자라야 하는 영적인 야성을 역설하고 있다. 김성진 지음 / 220면 / 10,000원

### 바로 그 교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고자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책이다. 김성진 지음 / 412면 / 15,000원



### 성경 속 여백 여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이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남긴 진솔한 은혜의 이야기이다. 다 채워지지 않은 성경의 긴 여백 속을 함께 여행해 보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하는 책이다.

- 저자는 예리한 분석, 관조자의 눈, 번득이는 아이디어, 새 시대를 직시하는 패러다임, 그리고 깊은 신앙심을 이 책에 모아 놓았다. 그러므로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나 부담 없이 진리의 광맥을 찾아 접할 수 있다.

- 김철환 목사 추천사 중에서 이종구 지음 / 358면 / 13,000원

저자 이종구 목사 중앙대학교 철학과 동 대학원(시인철학 전공)을 마치고 CBS 아나운서, 동아일보 기자, KBS 기자를 역임했다. 1997년 캐나다 밴쿠버로 이주해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의 퍼시픽 신학대학 대학원 M.Div(목회학사 과정)과 Th.M(신학석사 과정)을 최우수로 졸업하고 모교에서 ‘신학과 철학’을 강의했다. 미국연합장로회(UPUSA)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밴쿠버에서 병행 목회와 개척 목회를 하다 2013년 은퇴하고 현재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 성경도 신앙 (5)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 제일교회)

## 청교도 운동 이후의 '부흥'

- 그 퇴조와 부흥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중)

부흥을 위하여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제임스 뷰케넨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정리한다.  
(1)부흥을 위한 성령의 역사는 일시적이고 비범한 방식으로 일할 뿐 아니라 조용하고 점진적인 복음 사역의 성공을 주도한다. 다만 그 선택권은 성령 하나님의 주관적인 이해와 은혜에 맡겨야 한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이다. 부흥의 방식에 대한 상반된 견해에 대하여 뷰케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단순히 그들의 회심에 있어서 위대한 신앙 부흥의 외면적인 모습이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일정한 목회 사역 하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

님의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준 다. 그것은 믿음의 기도의 유효성을 증명하며 교회에 인간적 도구들의 결결과 약점을 교훈해주고, 모든 영적 능력의 참된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 준다.  
(3)성령은 부흥을 통하여 교회에 믿음과 소망을 소생시켜 준다. 즉 교회가 여러 종류의 시험과 환란을 통하여 낙담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중생시키는 사명이 이런 부흥한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 주 심으로, 교회의 믿음과 소망을 소 생시켜 준다.  
(4)성령께서는 사람들로 하여 금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는 그릇된 방향을 취하지만, 중생 할 때 그 의지가 바로 잡히기 때문이다.  
(6)사람의 영혼이 거룩해지는 전 과정에는 성령의 작용이 있다. 중생한 영혼은 처음에는 완전 한 거룩의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 일반적으로 그 영혼의 소원과 목 적들이 변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자기 지체 속에 있는 한 비가 자기 마음의 법과 투쟁하는 것을 경험한다. 이 거룩케 되는 역사의 그 첫 작은 각 부분마다 성령께서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 여섯가지 부흥에 대한 성령 의 역할을 살펴볼 때 부흥을 위 한 성령의 사역 방식에는 전적으로

류이다. 찰스 피니는 회심의 역사를 합리적인 논증에 의해 성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사실상 성령님의 역사를 배제 시키고 있으니 이것은 그가 궁극적으로 알미니안주의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부흥이 불가항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된 회심이 큰 규모로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드러나는 것은 부흥의 때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불가항 력적인 성격이 바로 이 부흥을 통 해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칼빈의 개혁주의를 주장하고 가르치는 우리가 바로 이런 불가항력적인 역사를 신학 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와 삶에서 경험해야 한다. 부흥은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성경의 교리와 신 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 리는 청교도 시대의 흐름과 역사 에 대해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 다.

4) 우리가 부흥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부흥의 은혜로 운 결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제임스 뷰케넨은 19세기 말에 쓴 그의 책 '성령의 사역, 회심과 부흥'에서 부흥의 결과에 대하여 '첫째 영혼이 각 성되고 소생케 된다. 둘째 하나님

## 부흥은 일시적이고 비범한 방식뿐 아니라 조용하고 점진적인 복음사역의 성공 주도 성령의 사역인 부흥은 모두 영혼 회심이 목적...부흥 때마다 하나님 주권 인식해야

에 사람들이 한사림씩 더해짐에 말미암아 위대한 회심사역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간과 하고 무시하는 자들을 지지할 수 없다. 우리는 교회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의 부여주심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에 도 역시 동의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흥을 비경쟁적인 기 만으로 여기고 오직 평범한 사역 을 통한 영적 진리의 점진적 성장 과 개인적 회심의 완만한 발전만 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자들의 생각에는 더더욱 찬성할 수 없다. 동시적이거나 연속적인 영혼의 회심이라는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제임스의 견해로 볼 때 부흥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일시적이 고 비범한 방식으로 임할 뿐 아니 라 조용하고 점진적인 복음 사역 도 모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다. 이 부흥의 역사 모두는 영혼의 회 심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2)성령은 부흥을 통하여 하나

능동적인 역할을 하신다. 성령께 서는 언제나 사람들의 양심을 향 하여 자신의 의도를 밝히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한 결같이 양심의 가책을 동반하게 하신다. 부흥이 임하면 사람들이 고뇌하기까지 양심의 아픔을 진 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죄인들이 가슴을 치 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다.  
(5)성령은 부흥을 통하여 회 심케 하는 역사를 한다. 회심이란 영혼이 죄로부터 거룩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 께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 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회심 을 가리키는 것이다. 죄를 깨닫고 미워하는 데 있어서 행해지는 것 은 이 회심의 준비 사역에 불과 하다. 성화의 역사에서 행해지는 것은 이 회심의 지속이다.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감화력을 행사하실 때, 직접 양심을 향 하지 않고 의지와 정서를 향해 진리를 말한다. 의지, 혹은 행동을 결정하는 기능은 천성적으로

로 성령께서 주관적으로 역사한 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러므로 부흥이 일어나는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뷰케넨 은 한 개인이 회심하는 데 작용하 는 감화력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이 드러난다면, 수 백명의 사람들 이 회심케 되는 부흥의 상황에서 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더 욱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 주고 있다.  
2) 개혁주의가 부흥에 관심을 가져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구원의 역사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부 흥의 때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구원의 역사는 단순한 도덕적인 설득이나 논증이 아니 라 성령의 역사이기에, 갑작스럽 게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통해 이것을 가장 잘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구원이 논증과 도 덕적인 설득의 결과라면 그 일을 계속해야 하겠지만, 바로 이것이 찰스 피니같은 사람이 가졌던 오

의 진리 안에 참된 실재와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다. 셋째 그 리스도께서 살아서 통치하시며, 성령께서 여전히 교회와 함께 거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넷째 대 단한 열정과 진심으로 기도를 올 리며, 진정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다섯째 그 리스도인들의 각성된 열정과 불 붙는 기도는 다른 이들에게 거룩 한 영향을 끼치고 구원받는 사람 을 낳는다 교회에 더하게 하는 수 단이 된다. 여섯째 모든 영혼이 신적 진리를 통하여 계몽되고 자 신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각성되 며, 죄를 슬퍼하는 경건한 근심에 휩싸이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무 조건적인 구원을 붙잡도록 자극 받으며, 새로운 견해와 새로운 감 정,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취미,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습관으로 충만해진다"라고 부흥에 대하여 우리가 기대하고 열망할 이유들 을 제공한다.  
younsuklee@hotmail.com



이희녕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 영성칼럼

### 누구를 위해 중을 올리나?

자신의 말대로 기도받은 지파 중에도 미미한 므낫세 지파 출신으로 미디안 에게 들릴까 포도주들에 밀을 타작하던 겹겹이 촌부입니다. "큰 용사여! 여 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불러 주시니 "저요?" "아니 제가요?"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부르셨는지 그 회심의 징표를 요지러 구합니다. 평 상시엔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며 어떻게 하실 것을 잘 도 알고 남에게는 너무나도 잘 가르칩니다. 그러나 실제의 급박한 위기가 닥 치면 머리의 믿음은 어디로 달아나고 불신자나 진배없습니다. 다급해 하나 님께는 매달리긴 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확신은 생기지 않고 기도온과 같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인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인지 하나님 명대로 아 세라 목장은 밤에 물레 찢고 쳐죽임을 당하려 할 때 여호와와 신이 기드온에 게 임하여 나팔을 부니 흩어진 이스라엘이 모여들어 힘을 합합니다. 그런데 또 겁이나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해도 책망치 않으시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은 겁에 질린 저를 다독여 믿음의 확신위에 저를 세워주십니다. 저 들 등산 에 기본 생존도 위협을 받던 고통스런 인생이 7년입니다. 도무지 믿음이라고 보이 지 않고 낙담해진 저들 중에서도 낙담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인생이 완 전 바닥이 아니 하나님을 믿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기 드온은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큰 용사가 진정 누구인가? 자신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 기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자입니 다. 자신의 머리를 굴리기에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도 무지 자신의 능력을 생각조차도 할 수 없으니 자신은 하나님과 백까지 하나 님의 역사임을 드러내는 분명한 도구입니다. 과연 약하니 하나님께 강함을 드러내실 수 있는 틈이 있습니다. 성령이 담대하고 잘난 용사보다 열등감에 자신감이 없는 못난이 기드온을 들어서 위대한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과연 상상을 불허 합니다. 확신이 생기니 전혀 다른 사람입 니다. 도무지 불안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촌부가 믿음위에 서니 그 담력이 정 말로 대단합니다. 3만2천 명 중 300명만 데리고 싸우라 해도 그대로 믿고 나 아가는 우직한 순종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가 담대히 미디안 가운데로 들 어가니 서로 꿈 얘기하는 것으로 인도해주시어 적군의 입을 통해 승리를 확 인하고 빈 항아리, 햇빛과 나팔만 대 응을 거둡니다.  
전쟁을 끝내며 기드온은 왜 각 이스라엘이 거둔 이방인의 금부치 노획물을 자신에게 달라하여 금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성을 오브라에 두었는지 궁금합 니다. 금들을 거두어 자기가 가졌다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으 나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에 둔 게 이상합니다. 하나님께는 이스 라엘을 드리고 폰 의도라면 좋은 것인데... 분명코 당시엔 실로에 있 었고 실로가 예배 중심이었습니 다. 자기 성에 금에봇을 둔 이유는 하나님 의 임재의 능력을 심히 아는지라 그 곳에 두면 하나님을 자기 곁에 붙들어 놓 을 수 있으리라 파위의 중심을 자기에게 두겠다는 무언의 선포로 보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오브라에 금 에봇을 음란히 사모하여 기드온과 그 집 에 올무가 되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은 실로에 잊혀지고 슬 그머니 인간 기드온이 영웅이 되어 기드온과 그 가족들이 권세를 움켜쥘까 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인간적인 권력을 탐하도록 오도한 결과를 낳았다 면 과연 무엇을 위한 헌신이었는지? 태평상태가 오니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또 자기 배만을 위하고 그토록 파위의 중심이 되고픈 기드온 집안도 다 아 랍곳없고 백성들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부추긴 꼴이 되었으니... 누구 를 위한 헌신이었나?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기드온이 촌부 출신으로 오브라에 의지하여 온 이스라엘을 구원해 낸 공적 은 참으로 가상하나 고향 하나님에 금 에봇을 두니 이스라엘 중심 실체가 되 어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셈입니다. 아들이 70이니 그 누린 광영 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하였지만 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 고향에 둔 죄 값을 자식들에게 심어준 철저한 권력 사랑에서 결 국 헛수고가 된 기드온의 비극을 봅니다. 오늘날도 부모는 큰 사역을 이룬 것 같아 성공한 인생 같아도 자녀교육에 실패하여 뼈를 깎는 목회자들을 봅니다. 정병도 가정 목회에 실패하면 목회도 실패한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생 활을 위해서라도 최빈한 주님의 종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실패의 때보다 는 오히려 성공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경고입니다.  
heonlee55@hanmail.net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오찬: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주일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Las Vegas, NV 89146	<b>덴버에담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www.kpcosattile.org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891, 267-471-7777 Fax: (610)222-08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urne Rd., Levittown, PA 19057 www.ijias.com	<b>벤델교회</b>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부흥예배(한):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907)344-6446, Fax: (907)344-6823 3165 St. Johns Lane, Ellington,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성서학당: 오후 8:00 대하청년부: 오후 1:30 영 아, 유년예배: 오전 11:00 유치, 유년노부: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linton, MA 01748	<b>샬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성서학당: 오후 8:00 대하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 아, 유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Fax: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 O BOX 8358 Lacey, WA 98509	<b>시에틀평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osattile.org	<b>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강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b>알칸사 제자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성서학당: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Ave., Little Rock, AR 72211 www.ijias.com	<b>앵커리지델린교회</b>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엘파소델린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교회: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b>킬린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성서학당: 오후 8:00 토요일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letranz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부흥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ij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25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부흥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Little Rock, WA 98444 www.lacomcric.com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청년예배: 오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	<b>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들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내 몫의 십자가를 감사하라



박성규 목사 (주남세운교회)

아프리카에 간 미국 선교사가 어느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강이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주민들이 모두 머리에 돌을 이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강 한가운데 가면 물살이 어찌나 센지, 돌을 지고 가지 아니

하면 떠내려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급류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급류에서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서 큰 돌 같은 고통의 십자가를 우리 성도들 어깨에 매워주십니

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유대인 랍비가 자신의 두 제자를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 장소에

이르러 랍비는 제자 둘에게 각각 십자가 하나씩을 건네주면서, 자신은 이 길이 끝나는 곳에 먼저 가 있을 테니 그곳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십자가를 걸머진 지 하루 만에 길 끝에 당도하여 십자가를 스승에게 넘겨드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제자는 이튿날 저녁이 되어서야 길 끝에 당도하였습니다. 도착한 제자는 십자가를 랍비의 발 밑에 내동댕이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는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내 주시다니요! 제가 이제야 온 것은 더 무거운 십자가를 썼기 때문이니까요." 제자의 불평을 듣고 있던 랍비는 마음이 상

한 채 슬픈 얼굴로 두 번째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둘 다 똑같은 무게였느니라" 그러자 "살마 무게가 똑 같았는데 저 친구는 아주 쉽게 지고 갔고, 저만 찢찢 매었다는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랍비가 그에게 타이르셨습니다. "십자가를 탓하지 말라. 그 까닭은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 꿀 불평을 늘어놓은 너에게 있느니라. 네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는 늘어났던 거야. 앞에 온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안 감사하며 기쁨으로 지고 갔기 때문에 그 감사가 십자가의 무게를 덜어준 거야.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 지고 갈 수 있었던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데, 십자가가 무겁다고 불평하면 할수록 십자가는 더욱 무거워지고 감사함으로 지고 가면 그 십자가의 무게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영광스런 삶인 것입니다!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약 1:12).

“시간과 정성 모두 올려드린다”

KUMC남가주여선교회연합회 선교찬양제 17교회 참여

한인연합감리교회(KUMC) 남가주 여선교회연합회(회장 최미란 사모)가 주최한 2016 선교찬양제 13일 오후 4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KUMC 남가주 여선교회연합회 선교찬양제가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벨리KUMC 여선교회찬양대가 회중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

최미란 회장은 “이번 선교 찬양제는 27번째로, 찬양제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귀한 시간과 정성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모였다”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서로를 격려하는 사랑의 축제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찬양제 시작되기 전 드린 예배는 샌디에고 난타팀의 오프닝 난타공연으로 시작, 최미란 회장이 환영 인사했으며, 이날 모인 참석자들이 전원 “여선교회 목적문”을 읽었다.

이어서 남가주여선교회 연합회 소

개 동영상이 상영됐으며, 목회자부부 찬양팀이 헌금특송 했다. KUMC 여선교회는 여성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체험하며, 창조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를 도모하고, 교회의 세계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목적으로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동신교회와 KCCC가 MOU를 체결했다.

남가주동신교회-KCCC USA MOU 체결 KCCC USA ‘순미니스트리’ 로 이름변경

남가주동신교회(담임 백정우 목사)와 KCCC USA(미주 한국대학생선교회, 미주대표 김동환 목사, 이하 KCCC)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11일 남가주 동신교회에서 열렸다.

KCCC의 박종술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남가주 동신교회와 KCCC 측은 △대학생 사역관련 훈련 스캅퍼스 선교 전략 △대학생 리더 훈련 스캅퍼스 사역을 위한 기도, 헌금, 참여 등의 협력에 동의했다.

KCCC 미주대표인 김동환 목사는 이번 양해각서 의미에 대해 “KCCC는 교회 옆에 있는 단체라는 의미의 파라처치(선교) 단체다. 교회의 협력 없이는 사역을 해나가기 어렵다”며, “KCCC의 차세대 사역을 신뢰하고, 가장 소중한 건물의 일부를 내어주면서 동역하는 교회로 남가주 동신교회와 마음이 맞았다. 교회 측에서 흔쾌히 KCCC와 동역에 응해주셨다. 이런 작은 기

적 차세대 사역을 위한 큰 걸음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또 김 목사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교회에서 다음세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심어주고 싶었다. 이러한 일들을 젊은 세대들이 깨닫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며, 교회내 사무실 이전 이유를 설명했다.

남가주 동신교회 백정우 목사는 “연합과 협력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본질적인 부분이 먼저 앞서야 할 것 같다”라며, “이 협력과 연합이 서로의 본질을 도우므로, 교회가 교회들 파송해 본격적인 틀을 만들어 갔다. 현재 90여명의 간사가 미 전 8개 도시 52개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KAFHI 2016 정기이사회 및 선교보고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FHI 2016 정기이사회 및 선교보고회 볼티모어 벨엘교회에서 7-8일 개최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KAFHI) 2016 정기이사회와 선교도전을 위한 보고회가 지난 7-8일 양일간 볼티모어 벨엘교회(담임 백신중 목사)에서 개최됐다.

비, 74,904.89달러 긴급구호비 50,004.21달러를 포함하여 536,690.02달러를 결산 보고하면서 30개주에 2000여명의 후원자와 후원교회, 특별히 새소망교회(안인권 목사), 워싱턴감리교회(이승우 목사), 벨엘교회(백신중 목사), 참사랑교회(은희곤 목사)등의 긴급구호지원과 CFCT 후원자들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또한 2016년 예산안으로 빈곤아동구호비 403,728.39달러와 일반선교비 356,842.46달러를 안건심 의하고 승인했다. 이날 이사회는 현재 새로 시작한 아이티, 케냐와 볼리비아 어린이센터의 개설 프로젝트를 받는 대로 연구 심의해 개원하기로 하고, 미주한인사회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주요도시 지회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8일 계속된 이사회는 선교보고회를 통해 현재 파송선교사의 선교보고 및 도전을 받았다. 아이티 선교사로 파송돼 6년을 사역하고 2기

를 준비하는 권오준 선교사는 사역의 새로운 다짐을 나누고 선한청지기교회(송병주 목사)에서 시작한 아동결연을 통해 학교교육과 급식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프리카리데터로 20년간 케냐에서 선교한 이종도 선교사는 브릿지월드 대학사역에서 훈련 파송된 현지인들을 통해 무슬림지역에서 진행되는 학교사역과 개발 사역을 소개하고 아프리카 난민과 미전도 종족을 타겟한 현지인 훈련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예로 KAFHI의 아동결연으로 몸바사 이슬람공동체에서 운영되는 브라이트엔젤아카데미의 기독교학교의 중요성을 설명해 도전을 주었다.

이번 KAFHI 이사회와 선교보고회는 벨엘교회 세계선교센터(최명기 장로) 후원과 전임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이세희 장로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세희 장로는 KAFHI 파송 선교사 세 명에게 선교비를 전달해 큰 격려와 힘을 보탤다.

KAFHI는 2016년 2,450명의 빈곤아동후원과 긴급구호, 빈곤국가 단기봉사 및 선교팀 파송, 케냐 학교건립, 볼리비아 진료소 개소, 캄보디아 고아원 및 학교사역, B국의 ELP장사역, 퍼스펙티브스 훈련 등 사역을 위해 Food for the Hungry Sunday를 진행하며 관심 있는 교회, 기업과 한인사회의 후원을 바라고 있다.

후원문의 정성호 목사(703-473-4696), 이메일 kafhi@fh.org, www.kafhi.org(Kor) www.fh.org(Eng).

(기사제공: KAFHI)



어려운 환경이나 삶에 힘들어 하는 한인들을 음악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희망미니콘서트가 작가의집에서 열렸다

“힘든 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호프미니콘서트 주최 희망미니콘서트

호프미니콘서트(단장 크리스토퍼 피전 목사)가 주최한 희망미니콘서트가 13일 오후 5시30분 작가의집(2410 W. James M. Wood Blvd.)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어려운 환경이나 삶에 힘들어 하는 한인들을 음악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콘서트는 연재환, 이준우, 고현미, 신용주, 이동혁, 니콜 전, 제이씨(J. C), 수안리, 이한

샘, 에밀리강, 정다희, 제이슨우 씨가 출연하고 JVM스튜디오(대표 준박)와 LA 브라비(Bravi) 심어즈(지휘 이경원)가 출연해 따스한 마음을 노래에 담아 전했다.

이날 콘서트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공연장에 찾아와 호프미니콘서트 측에서 마련한 식사를 함께하며 그리고 그들이 마련한 따스한 마음을 함께 공유했다.

크리스토퍼 피전 단장은 “희망미니콘서트는 힘들어 하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전하는 공연이다. 무대에 서는 공연자들이 전하는 가사가 힘든 이들에게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지’라는 아주 작은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희망미니콘서트는 연 3회에 걸쳐 정기연주회를 갖게 된다. 앞으로 불우한 이웃, 어린이 병원, 노인 아파트 등을 방문해 공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APU한인동문회, 김세운 교수 고린도전서 강의

아주사피픽대학교(APU) 한인동문회(회장 최장식 목사)가 주최한 김세운 교수(풀러신학교) 고린도전서 강의를 14일 오후 10시30분 APU LA 센터에서 열렸다.

김세운 교수는 “고린도전서는 실제적인 이슈가 많은 책”이라고 언급하고 “고린도전서는 서두(1:1-9), 고린도로부터 온 소식들에 대한 반응(1:10-6:20), 고린도교회의 편지

에 답함(7:1-16:12), 결론(16:13-24)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세운 교수는 “목회자들은 어떤 종류의 사역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임무”라고 강조하며, “목회자가 사역을 할 때 제자훈련이나 전도폭발 등 그때그때마다 유행하는 기법과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것을 볼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성경의 깊은 해석과 복음의 포괄적 신학적 사고에 기반 하지 않은 채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어떤 프로그램도 교회 성장의 도구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APU한인동문회 주최 김세운 교수의 고린도전서 강의를 APU LA센터에서 열렸다







# 2016 남가주 한인교단 봄 정기노회 일제히 개최

남가주 지역 한인교단 각 노회들이 일제히 정기노회를 열었다.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KAPC LA노회, KPCA서남노회, 서노회, 예정합동 해외총회 남가주노회등은 정기노회에서 임원들을 개선하고 당면 문제를 논의했다.

## KPCA서남노회

해외한인장로회 서남노회(KPCA 노회장 정중환 목사) 제54회 정기노회가 가나안교회(담임 이철 목사)에서 7일과 8일 양일간 열려 노회장에 이철 목사를, 부노회장에 이호우 목사를 선출했다.

이번노회는 서남노회와 자매노회를 맺은 예정합동 목포노회의 노회장 장 증경노회장 등 노회원과 KPCA 총회장 김중훈 목사가 방문해 노회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노회를 방문한 김중훈 총회장은 지난 2015년에 칸쿤에서 열린 KPCA 총회 때 총회장소 호텔 의 에어컨 고장으로 노회에 차질을 빚은 문제에 대해 호텔 측에서 호텔 사용료 5만5천 달러를 돌려받게 됐다며 이 금액과 총회에서 모인 금액 등 총 20여만 달러를 시드머니로 하여 100만달러 이상 모아지게 되면 총회원들을 위한 연금제도를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신임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이철 목사(가나안교회) △목사부노회장 이호우 목사(좋은소식교회) △장로부노회장 김광영 장로 △서기 정경화 목사(한마음선교교회) △부서기 김경섭 목사(오렌지카운티영락교회) △회록서기 안성복 목사(다우니제일교회) △회록부서기 이상림 목사(새가나안장로교회) △회계 김성근 장로(오렌지카운티영락교회) △부회계 김세웅 장로(주님의빛교회).

## KAPC LA노회

미주예수교장로회 로스앤젤레스노회(KAPC) 정기노회가 8일 오전 10시 동문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노회는 조정기 목사를 노회장에, 김성일 목사를 서기 겸 회록서기에, 그리고 박영수 장로를 회계

로 선출했다.

김성일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김만수 목사(새생명선교교회)가 기도했으며 조정기 목사(갈보리섬기독교회)가 '함께 하는 자'(엡3:14-19)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성찬식을 집례했으며 차병학 목사(나성안대우교회)가 축도했다.

이번 노회는 비상노회의 성격으로 열려 노회원들의 부족으로 부노회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 KPCA 서노회

해외한인장로회 서노회(KPCA 노회장 김경진 목사) 제 86회 정기노회가 갈보리섬기독교회(담임 강진웅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노회는 주향교회 김신 담임목사와 김창훈 장로의 갈등에 대한 수습과 새한교회 교인들 간 벌어진 갈등 및 합의사항에 대해 다뤘다.

또 오후에는 목사안수식이 열렸다.

## 예정합동 해외총회 남가주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남가주노회(노회장 대행 정신구 목사) 제62회 정기노회가 14일 오전 11시 성민교회(담임 정신구 목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사 60:1)'라는 주제로 열려, 노회장에 정신구 목사, 부노회장에 장준근 목사를 선출했다.

이번 노회는 노회법을 위한 안수학, 이시영, 조성, 원성택 목사에게 면직 및 제명처리를 했으며 노회규칙 개정을 했다.

신임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정신구 목사 △부노회장 장준근 목사 △서기 정완기 목사 △부서기 이동규 목사 △회록서기 김경준 목사 △회록부서기 정진기 목사 △회계 윤태근 목사 △부회계: 조선택 목사.



KPCA서남노회가 가나안교회에서 열렸다.



KAPC LA노회가 동문교회에서 열렸다



KPCA서노회가 갈보리섬기독교회에서 열렸다



예정(합동) 해외총회 남가주노회 제62회 정기노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서부교계 게시판

## 성가대 지휘자 초빙

나성안교회(담임 신동철 목사)에서 성가대 지휘자를 초빙한다. 세례교인으로 음악을 전공하고 성가대 지휘 경험이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1통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주소: 2241 N. Eastern Ave L.A. CA 90032.

▲문의: (323)221-9531, lacpc1976@yahoo.com

## 크리스찬문학 27집 발간 및 시화전

크리스찬문인협회(회장 정지윤 목사) 33주년을 기념하며 오는 5월 28일(토) 오전 10시 출판기념회와 시화전, 음악회 특강 등을 작가의집에서 갖는다. 이 행사를 위해 시 한편을 오는 31일(목)까지 보내면 권운섭 화가가 시에 맞는 그림을 넣어 작품을 만든다. 시 보낼 곳 dongkoks@hanmail.net 참가비는 족자비용 포함 150달러.

▲문의: (213)249-0771

## 조이 어린이 토요학교 개강

조이어린이토요학교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남가주사랑교회에서 열린다. 조이어린이토요학교는 지적장애를 가진 6-12살까지의 어린이들과 일반아동(1-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합 토요학교로 진행된다. 아울러 조이장애선교센터에서는 토요학교에서 봉사활동 학생 및 성인 봉사자와 각 프로그램을 담당할 강사, 점심을 제공할 개인과 단체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714)525-0569, sarah4ujoy@gmail.com

## 미주평안교회, 한 영혼 살리기 말씀축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는 3월 22일(화)부터 26일(토)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갖고 이어 4월 14일(목)부터 17일(주)까지 이정근 목사(유니온교회 원로, 풀러신학대학원 겸임교수)를 강사로 '한 영혼 살리기 말씀축제'를 개최한다.

▲문의: (213)381-2202

## 은혜한인교회, 특별새벽부흥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가 21일(월)부터 26일(토)까지 '가장 귀한 그림...예수 그리스도'란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새벽부흥회를 개최한다. 또한 25일(금) 저녁 8시에는 성금요일칸타타가 준비된다.

▲문의: (714)446-6200



소망소사이터가 주최한 제148차 소망교육세미나가 세리토스장로교회에서 열렸다.

# 소망소사이터 제148차 소망교육세미나

소망소사이터(이사장 유분자 장로)가 주최한 제 148차 소망교육세미나가 3월 11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세리토스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본 교회 훌푸르대학 학생 및 외부 참가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는 소망소사이터 합창단의 합창을 시작으로 최경철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어진 병원 상황극을 통해 준비 없이 당하게 되는 죽음 앞에서 당

황하게 되는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유언서 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죽을 준비 과정 중 하나인 시신기증에 대한 김병희 소망소사이터 홍보대사의 간증 시간이 있었으며 소망소사이터 웰빙 사업 중 하나인 아프리카 우물 파기 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유분자 이사장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연으로 끝을 맺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터)

#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7면에서 계속)

##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325년에 니케아에서 모였던 최초의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니케아 신경'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데살로니가 칙령'을 발표한 이후 신학의 정통성을 교회에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그 결과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두 번째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그가 이 모임을 소집하였다. '데살로니가 칙령'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성부와 성자의 '동일본

질'과 삼위일체의 세 위격을 구별을 확증하는 기록문을 담은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제정된 것이다.

2) 성경이 보인다 - 잠언 27:1; 마태복음 6:25-34; 빌립보서 4:6-7; 야고보서 4:14

신앙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행위이다. 문제는 모든 것을 맡기느냐는 것이다. 믿음을 지닌 성도는 결코 '불확실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걱정하거나 두려워하

지 않을 것이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는 항상 '미래의 일' '미지의 일'라고 하는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도 모르는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떠돌아다니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금증을 풀 수 없는 자신을 인정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그는 모든 것을 아시고 뜻대로 행하시

는 절대주권자이다. 각 개인을 포함하여 이 세상의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 특히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그가 정하신 방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믿는다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covenantcho@yahoo.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1부예배: 오전 7:45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2:30(성탄) 새벽기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전 5:30(월-토) 주일6부예배: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명목목회(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대부부: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EM):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drock@gmail.com	<b>남가주사랑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청년예배: 오후 11:20 영아권(영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	<b>동문교회</b>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egpc.com	<b>디아스포라선교회</b>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동행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2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대일)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 (213)380-9377, 9079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1부: 오전 8:30 주일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성탄절) 4부: 오후 11:45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www.mpcl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효 주일예배1부: 오전 7:15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산전영양예배: 오후 8:00 대학원예배: 오후 1:00 영어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2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요셉선교교회</b>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927 S. Bonnie Brae St., L.A., CA 90006	<b>열매교회</b>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3)380-0071, Cell. (213)215-8223 38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b>얼마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5부예배: 오후 5:30(성탄) 장미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Bimini Pl., Irvine, CA 92604
<b>일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미복합)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토요일예배: 오전 3:00(대일) 3:00(대일)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b>주님새문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일예배: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5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pc.org	<b>좋은마을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일기도: 저녁 8:00 사택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www.socialsamsungchurch.org Tel. (714)649-9259 Fax. (714)649-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686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tv.com / e-mail: pastor@corneston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2	<b>토렌스노교회</b>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5부예배: 오후 3:00(성탄) 장미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p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59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 '2016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60개 교단 참여 인도 이영훈 목사, 설교 채영남 예장통합 총회장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상징인 부활절연합예배가 오는 27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광림교회(김정석 목사)에서 열린다. 60여 교단이 한 마음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2016 한국교회 부활절 준비위원회'는 11일 광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순서자와 주제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2016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는 이영훈(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측) 총회장의 인도로 27일 오후 3시에 광림교회에서 열린다. 설교에 채영남(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 예배 기도에 안만길(예장 합심) 총회장, 특별기도에 유영식(기독교한국침례회) 송덕준(예수교대한성결교회) 임종원(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총회장이 순서자로 나선다.

준비위원장 김창수(예장 합동) 총무는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하나로 합했기 때문"이라며 "2016년 부활절연합

예배를 통해 한국교회 위상이 되살아나고 부활의 생명이 온 누리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오는 2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이동준 목사) 주관으로 진행되는 부활절 예배에 대한 시각과 교회협 소속 교단 성도들의 연합예배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교회협은 26일 밤 11시부터 27일 새벽 1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서대문 형무소 역사문화관에서 '100년의 고난'을 주제로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

이에 대해 201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대표대회장 전용재(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교회협이 고난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부활절을 맞아 교회협의 사역 특성을 담아 진행되는 예배"라며 "부활절연합예배 대표대회장으로서 교회협 회장과 총무를 비롯해 소속 교단 성도들이 연합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 감독회장은 "각 교단의 헌신과 협조 덕분에 올해 부활절에는 한국교회가 말 그대로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리게 됐다"며 "이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일 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사회에도 바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노천극장이나 체육관 등 교회 밖

공간에서 예배를 진행할 때보다 경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소요되는 비용을 아껴 '사회적 약자 구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논산 훈련소 연무대교회 건축 지원'에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회협 관계자는 "아직까지 연합예배 참석에 대한 공식 요청은 없었다"며 "준비위가 공식 절차를 통해 연합예배 참석 요청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한기총, 부활절연합예배 동참 결의

한기총 제6공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11일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더 팰라스호텔에서 27-2차 임원회를 열고, 부활절연합예배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기총 임원회는 이날 "오는 27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광림교회에서 열리는 부활절연합예배에 한국교회 교단장회와 함께 참여하

다"고 결의했다. 부활절연합예배에서는 이영훈 대표회장이 예배를 인도한다.

임원회에서는 또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복음연맹(WEA) 세계지도자대회의 결과보고를 받고, WEA가 발표한 '한반도 국민을 향한 WEA 친선메시지' 등을 그대로 반기로 결의했다.

### 은혜로교회 신옥주씨, 이단연구가 상대 패소 서울고법,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경기도 과천 은혜로교회가 이단 연구가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안주)는 "은혜로교회가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와 진용식 최삼경 박형택 이인규 목사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은혜로교회와 신옥주씨는 인천 지예수교장막성식의 비유 풀이를 하며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130년 한국교회 역사를 부정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심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됐다.

이단연구가 4명은 2010년부터 '신씨의 은혜로교회가 반사회적 범죄 집단인 신천지와 유사하며 신씨를 우상화한다' '가정을 파괴하고 현금을 갈취하며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한다' 등의 글을 인터넷 매체에 올렸다(표 참조). 은혜로교회 측은 인터넷 매체에 게재된 이단연구가들의 글을 모두 삭제하고 게재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단연구가들이 신씨의 설교 내용 등을 기초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예상합심 보고서에 기

재된 내용을 인용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일부는 은혜로교회가 내세우는 교리에 대한 평가와 비판적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표현 중에 진실한 내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실이 일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이단연구자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단연구가들의 표현은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은혜로교회가 요구한 '게시물 삭제'와 '게시 금지'는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이번 신청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은 "이번 소송에서 볼 수 있듯이 이단들은 소송폭탄을 통해 비판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 주임동에 있는 은혜로교회에는 현재 1000여명의 신도가 출석하고 있다.

### "동성애 축제 알몸 행진은 불법"

#### 검찰 "공공장소서 타인에 불쾌감 안된다" 경범죄 인정

검찰이 동성애 축제에서 '알몸 퍼레이드'를 벌인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신원 미상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일단 기소유에 처분을 내린 뒤 검거하는 대로 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서울광장에서 열린 동성애 퀴어문화축제에서 알몸 차림으로 거리를 행진한 혐의로 고발된 신원 미상의 인물들을 기소유에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소유'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나이나 성격, 지능, 환경이나 정상(情狀), 범죄의 경중,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

월 2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아 이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누구든지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기소중지해도 검거될 가능성이 희박해 기소를 유예한다"며 "피의자를 검거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태(범무법인 로고스 교문) 변호사는 "기소유에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동성애자들에게 알

몸 노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그러나 경찰과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순복음강남교회에 출석하는 김진씨는 지난해 7월 친(親) 동성애 단체들이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 축제를 열고 공연하게 음란행위를 했으며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처벌돼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냈다. 고발에는 전국 각지에서 5800여명이 동참했다.

김씨는 "동성애자들이 서울광장에서 한 불법행위를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간과할 수 없어서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번 기소유에 처분을 통해 이들의 범법사실을 확인한 만큼 조만간 1만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인당 10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소송가액

은 1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원고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강모씨에 대해서 "직접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거나 일부 참가자들과 공모해 과다노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공연음란 행위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공무원 전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으며 혐의없음 처분,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내렸다.

고발인 측은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항고할 방침이다. 과다노출을 한 본범에게 죄가 있고 이들을 아직 붙잡지 못한 상황에서 행사를 주관하거나 장소를 빌려준 사람만 무혐의 결정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 세기총, 새 대표회장에 고시영 목사 제4차 정기총회, "한국교회 세계화 추진할 것"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는 10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4차 정기총회를 갖고 상임회장 고시영 목사를 새 대표회장에 선출했다.

신임 고 대표회장은 1998년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부활교회를 개척했으며 현재 서울장신대 이사장, 선종선교회 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장기발전연구위원회 위원장, 목회자신문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고 대표회장은 취임인사에서 "미래지향적인 연합단체로서 한국

교회의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기총은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 단체 명칭을 변경했다. 또 수석 상임회장이 대표회장 직을 자동 승계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세기총은 4월 필리핀 선교사를 위한 특별세미나, 5월 다문화부모 초청 행사, 6월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서울포럼, 8월 백두산 통일기도회, 10월 다문화가정 초청 부부세미나, 11월 한국기독교미술문화대전 등을 올해 사업으로 결의했다.

미국과 일본 몽골 등 22개 국가에서 참석한 대의원들은 "교회연합운동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는 거룩한 사역임을 인식하고 배려와 양보, 조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나갈 것임을 주님 앞에 엄숙히 다짐한다"고 선언문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상축사에서 "다문화 가정 등 소외이웃을 위한 세기총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세기총 직전 대표회장 장석진 목사는 설교에서 "'서로'라는 단어를 빼면 기독교의 정신은 사라질 것"이라며 "세기총 회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권면해 아름다운 사역을 많이 펼쳐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 기하성서대문, 두 교단으로 사실상 분열 교단개혁 측 임시총회 개최...서안식 총회장 등 불신임 확정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서대문이 사실상 교단 분열의 길로 들어섰다. 전 총회장 박성배 목사의 공금횡령 및 도박 파문에 반발한 목회자들이 별도의 총회를 열고 박 목사를 지지하는 기존 총회 지도부를 불신임했다.

14일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평택 순복음교회(강현식 목사)에서는 '교단개혁을 원하는 목회자연합'의 주도로 기하성서대문 제64차 제2회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

체 총회대의원(총대) 594명 중 354명이 참석했다.

총대들은 지난달 25일 열린 임시 실행위에서 결의한 서안식 총회장과 회계 유영희 목사, 재무 김서호 목사의 불신임과 직무정지를 확정했다. 재단 대출금 등을 빼돌린 뒤 도박 자금 등에 망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목사에 대한 조사와 교단이 임의 피해 복구 등에서 총회장이 임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총대들은 또 현 총회

정채위원장인 박 목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박 목사를 총회 재판위원회에 넘겨 죄를 묻기로 결의했다.

임시총회에서는 부총회장 심덕원 목사를 총회장 직무대행으로, 송시웅 전주 성도순복음교회 목사를 회계 직무대행으로, 백용기 순복음사람교회 목사를 재무 직무대행으로 세웠다. 또 5월 열리는 교단 정기총회 전까지 총회조직과 전국지방회의 재정비를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총대들은 '비전선언문'도 발표하고 '불의와 불법, 거짓과 정권력 남용'으로 인해 암흑에 빠진 총회를 총대원의 힘과 지혜로 회복해나가지"고 다짐했다.

한편 박 목사 지지 측은 임시총회의 결정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 총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교단헌법에 임시총회 소집권자와 소집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개혁에 관한 논의를 금지할 권리가 서 총회장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 총회장은 국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출교·제명된 이들이 주축이 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내린 결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이미 그들을 타 교단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는 각자의 길을 갈 것이라 생각

한다"고 밝혔다. 서 총회장 등은 지난달 긴급임원회를 통해 목회자연합 측 60여명의 제명·출교를 결정했다. 그러나 목회자연합 측은 총 8명인 임원의 과반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임원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목회자연합에는 부총회장 심 목사와 송시웅 장로, 총무 정동균 목사, 서기 이근재 목사 등 임원 4명이 소속돼 있다.

정 총무는 "이미 법원에서 임시총회의 합법성을 인정했고, 총대 다수가 참석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임시총회에서의 결정은 엄연히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강사: 라흥채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이슬람 붕괴설



전호진 박사

(미얀마개혁장로교신학교, 이슬람 선교 전문가)

토인비는 6천여 페이지나 되는 유명한 저서 "역사연구"에서 몰락하는 문명을 강조하였다. 그는 종교 몰락을 말하지 않은 것 같다. 나라나 문명은 사라져도 문명과 문화의 근본이 되는 종교는 멸종이 없다. 가나안 문명은 멸망하였지만 바알종교는 그대로 남아있다.

작년도 일본 NHK는 아랍국가 붕괴론을 보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동조한다. 아랍국가치고 지금 조용한 나라는 없다. 이슬람의 종주국 사우디도 불안하다. 2007년 Iran Ministries(미국에서 이란을 향하여 방송 선교하는 선교회) 지도자는 호메이니 덕분(?)에 청년들이 이슬람을 떠나고 기독교로 개종한다고 하였다. 영적으로 이슬람이 붕괴되어 많은 이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런데 이슬람 몰락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자는 유대인 이슬람 전문가 버나드 루이스라고 생각한다. 그는 2001년 9.11테러 이후 What Went Wrong? Western Impact and Middle East Response(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서구의 영향과 중동의 반응)에서 이슬람이 쇠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책의 일본어 번역판 책 제목이 아주 자극적이다. "

이슬람세계는 왜 몰락하는가?: 서양근대화와 중동."

이 책은 독일어로도 번역되었는데, 제목은 Der Untergang des Morgenlandes: Warum die islamische Welt ihre Vormacht verlor(동양의 몰락: 왜 이슬람 세계는 힘을 잃었는가)이다. 제목 자체는 중동만이 마치 동양 전체를 대표하는 것 같아 유감이다.

루이스는 유대인이라 이슬람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지적한 이슬람의 쇠퇴의 원인을 상당수 이슬람 국가 지식인들이 같은 논리로 말한다. 루이스는 그의 저서 마지막 장 "이슬람 세계의 몰

락"에서 몰락원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서 근대화를 외면하였다. 중동이 한 수 아래라고 무시하는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지만 지금은 중동이 한국으로부터 기술이나 청부업자를 초청해야 할 상황이다.
2. 이슬람 세계는 실패를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버릇이 있다.
3. 반유대주의를 수용하였다. 이슬람 세계는 유대인들을 경계하고 경멸하지만 도리어 1948년 1차 중동전쟁과 68년 2차 중동전쟁에서 많은 인구가 병력의 아랍연합군은 비참하게 패배하고 말았다.
4. 이슬람 세계는 서로 비난경쟁

여되었다. 서구식 개혁이나 비판이 불가능하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슬람 몰락설

루이스는 유대인임으로 불가피하게 이슬람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 내부에서 이미 이와 유사한 비판이 일어났다. 구글 사이트에 영어로 collapse of Islam을 치면 놀랄게도 루이스 비판과 유사한 글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 중 많은 글들은 무슬림 세계 출신의 지식인들이다.

이라크 침공 후 이라크 국방부장관을 지낸 알리 알라위는 저서

"이슬람 문명의 위기"(The Crisis of Islamic Civilization, Yale University Press, 2009)에서 루이스와 아주 비슷한 사상으로 이슬람 문명의 위기를 논하였다. 알라위는 이슬람 문명은 서구화와 국제화에 대처하지

못하였고, 국내적으로는 개혁과 민주화와 인권문제에서 실패하였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내부자의 분노에 찬 자기문명의 고발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른 내부자들의 소리도 유사하다. 구글에 뜬 글들을 종합하면,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은 2011년 아랍스프링의 실패를 지적한다. 아랍출신의 한 기고자는 아랍세계를 "스스로 파괴시킨 문명"(self-

destroyed civilization)이라고까지 표현한다. 그는 20세기 아랍 세계를 휩쓴 이데올로기와 정치운동은 완전 실패한 것으로 단정한다. 20세기 아랍 세계를 지배한 두 이데올로기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이다. 민족주의는 이라크의 바트당과 나셀주의가 대표적이던 시리아의 바트당은 독재로 나라를 사실상 붕괴시킨 상태이다. 사회주의 경제를 채택한 아랍 국가는 실패하고 말았다.

이슬람 문명을 파괴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슬람의 내부갈등과 분열이다.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립을 두고 이 기고자는 "오래된 분파적 증오"(ancient sectarian hatred)로 말한다. 3월 8일 일본 NHK 저녁 국제뉴스는 사우디의 19개 국가 수니파 나라들이 사우디에서 대대적 군사훈련을 한다고 보도하였다. 수니파 20개 국가의 적은 바로 시아파 종주국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라고 잘 설명한다.

아랍세계를 붕괴시키는 중요한 요인은 이슬람 테러이다. 서구학자들이나 내부자들도 이슬람 테러는 이슬람을 스스로 파괴하는 주범으로 본다. 현재 구라파에서 IS나 알카에다의 테러는 소강상태지만 북아프리카, 이라크, 파키스탄 등 이슬람 국가에서는 자살테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슬람 국가를 탈출한 난민들은 무슬림 국가로 피난가지 않고 다 구라파로 향한다. 무슬림 난민은 구라파의 심각한 위기이다. 그러나 무슬림 세계의 최대 위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슬람은 계속 평화, 사랑, 관용의 종교라고 크게 외칠 수 있을까?

hjjun01@hanmail.net

## 이슬람 멸망 원인: 근대화 외면, 책임전가, 반유대주의 수용, 자기비판 결여 내부 갈등과 분열, 테러, 난민 유입행



### 십자말 • Cross Word (118)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23	24	25	26	27	28
30		31			

#### <가로 푸는 열쇠>

3. 자세히 참고함(신4:32).
5. 더할 나위 없이 몹시 심함(시119:107).
6. 몸을 상하여 활례한 것을 자랑하는 당파(빌3:2).
9. 아라바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숙영지(민33:41).
10. 신령이 몸에 접한 사람(신18:11).
12. 유대인으로 율법을 반대하고 자강하며 도당을 모집하더니 대해뿔 말년에 멸하였다(행5:36).
13. 예서의 아내인데 헷 족속 열몬의 딸(창26:34).
15. 일천 갑절(신1:11).
16. 다니엘의 세 친구 중의 한 사람으로 이교도적 명칭(단1:7).
17.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내림(삼하13:28).
19. 레위지와 게르손 자손 시므이의 둘째 아들(대상23:10).
21. 거리끼어서 거저적거리는 물건(레19:14).
23. 음식이나 사물에 대하여 좋고 언짢음을 느끼는 기분(딤후5:23).
24.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민족 최대의 명절(출12:11).
26. 모란과의 교목, 혹은 관목의 열매. 각기병 등의 약재로 쓰임(사28:25).
27. 그리스도가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책.
30. 그 집안의 제일 위사람(암4:1).
31. 신자를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리는 교역자(렘4:11).

#### <세로 푸는 열쇠>

1. 이스라엘 사사로 함선 자. 여인으로 인하여 망함(삿13:24).
2. 예의를 차리지 못함(시31:18).
4. 일부러 사람을 죽인 사람(민35:16).
5. 바나의 자손(시10:40).
7. 요시야왕 때의 여선지자 홀다의 남편. 살롬의 조부(왕하22:14).
8. 웃어른을 극히 높여 일컫는데 쓰는 제삼인칭 대명사(창16:5).
11. 맞붙어서 닿음(출29:37).
13. 예수를 핍박하던 자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회심하여 그의 위대한 전도자가 됨(삼사).
14. 예루살렘 북쪽 아나돗과 계림 사이에 있던 베냐민의 한 성읍(사10:31).
15. 천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출18:21).
18. 눈앞 위의 누선에서 나오는 분비물(왕하13:14).
19. 임금을 호위하던 군대의 장(창37:36).
20. 보통보다 뛰어나(시97:9).
22. 슬퍼하여 흐느껴 우는 소리(욥30:31).
24. 감람과의 유향수. 유향을 짜내는 나무(아4:14).
25. 인력으로 곡식을 짓거나 밟는데 쓰는 기구(민11:8).
28. 남녀가 결혼하기로 약속함(신20:7).
29. 조심하라고 경계하여 타이름(출21:29).

#### 십자말 정답

구	도	배	두	파	막
장	모	크	이	왕	평
백	구	보	사	목	하
배	양	귀	수	근	안
수	배	개	새	진	안
책	우	안	배	진	하
안	비	목	토	민	구
신	자	배	파	구	막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 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써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 학사, 석사 박사학위과정

학사: 신학, 기독교교육,  
석사: 다문화, 영어교육, 상담학, 교회음악, M.Div,  
박사: D.Min, 다문화, 교회음악, 크리스찬리더십박사

1. 저렴한 학비, 통신, 온라인, 집중강의, 등을 통한 학점 취득
2. 미국 초교파적인 국제복음주의협회(IEA)로부터 목사안수 (남, 여) 와 선교사 임명 받을 수 있으며 IEA 회원이 될 수 있다.
3. 본교는 미국 미주리주정부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대학교이다.
4. 타대학 학점 최대한 인정 편입 가능.

Global Gateway University  
www.goggu.us / info@goggu.us



### 총신 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 교육국 BPPE CODE 94874 (e)(1)인준학교

총장 이동규 박사

chongshinuts@gmail.com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el: (213)386-0300  
(213)422-8916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매너  
교회매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 힐링캠프 기도원



이선자 목사

섬과 회복이 있는 기도 동산.  
지친 일장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 주세요

Cell. (714)220-7660  
3026 W. Ball Rd. Anaheim, CA 92804  
jesussunja@gmail.com



부활절 축하 광고

# Happy Easter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p><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p> <p>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Tel. (714)521-0991 Cell.(714)521-4636</p>	<p><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p> <p>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Tel. (323)913-4499 Fax.(323)913-4494</p>	<p><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p> <p>1200 W. Lambert Rd., Brea, CA 92812</p> <p>Tel.(562)691-0691 Fax.(562)691-0698</p>	<p><b>남가주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p> <p>1645 Beverly Bl, L.A., CA 90026</p> <p>Tel. (213)481-2779 Fax.(213)481-3761</p>	<p><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 노창수</p> <p>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Tel. (714)772-7777 Fax.(714)772-0777</p>	<p><b>뉴욕갯세마네교회</b> 담임목사: 이지용</p> <p>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p> <p>Tel. (718)464-2295 Fax.(718)762-4693</p>	<p><b>뉴욕목양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p> <p>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 NY11357</p> <p>Tel. (718)361-9199 Fax.(718)361-9433</p>
<p><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혜천</p> <p>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Tel. (516)295-7987 Fax.(516)883-1961</p>	<p><b>뉴욕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라용채</p> <p>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p> <p>Tel. (718)224-1993</p>	<p><b>뉴욕초대교회</b> 담임목사: 김승희</p> <p>210-10 Horaca Harding Exp Bayside 11364</p> <p>Tel. (718)639-3021 Fax.(718)507-6376</p>	<p><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p> <p>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Tel. (201)342-9194 Fax.(201)943-5204</p>	<p><b>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p> <p>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Tel. (702)579-7576 Fax.(702)257-9191</p>	<p><b>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강준수</p> <p>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p> <p>Tel. (702)749-9909 Fax. (702)478-7224</p>	<p><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p> <p>37-57 104St, Flushing, NY 11368</p> <p>Tel. (718)961-2171 Fax.(718)961-3631</p>
<p><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 최해근</p> <p>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Tel.(610)222-0691 Fax.(610)222-0692</p>	<p><b>미주 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p> <p>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Tel.(213)381-2202 Fax(213)381-2535</p>	<p><b>벤엘교회</b> 담임목사: 백신중</p> <p>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Tel. (410)461-1235 Fax.(410)461-6823</p>	<p><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 김홍운</p> <p>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Tel. (215)945-1512 Fax.(215)945-2095</p>	<p><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전덕영</p> <p>2 Main St, Hopkinton, MA 01748</p> <p>Tel. (508)435-4579 Fax.(508)435-5467</p>	<p><b>빛과 소금의교회</b> 담임목사 : 이정현</p> <p>21519 S. Menlo Ave, Torarnc CA 90502</p> <p>Tel.(310)749-0577</p>	<p><b>샤롯데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 나성균</p> <p>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p> <p>Tel.(704)529-0900 Fax.(704)529-0998</p>
<p><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p> <p>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Tel. (213)745-9191 사택.(818)893-8607</p>	<p><b>시애틀평양장로교회</b> 담임목사 : 박은일</p> <p>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p> <p>Tel.(206)527-0981 Fax.(206)524-1746</p>	<p><b>알칸사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 전남수</p> <p>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p>	<p><b>얼바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경호</p> <p>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Tel. (949)857-9425 Fax.(949)857-9472</p>	<p><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p> <p>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Tel. (215)542-0288 Fax.(215)542-9037</p>	<p><b>에벤에셀선교회</b> 담임목사 : 최창섭</p> <p>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p> <p>Tel.(718)570-5858</p>	<p><b>엘파소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p> <p>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Tel. (915)755-1490 Fax.(915)751-4365</p>
<p><b>앵커리지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 유재일</p> <p>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Tel.(907)344-6446, Fax.(907)344-3182</p>	<p><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 한기홍</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Tel. (714)446-6200 Fax. (714)446-6207</p>	<p><b>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 한세영</p> <p>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Tel.(703)941-4447 Fax.(703)941-4448</p>	<p><b>월셔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 엄규서</p> <p>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Tel.(213)384-7274 Fax.(213)384-8638</p>	<p><b>좋은마을교회</b> 담임목사 : 신원규</p> <p>168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8 Tel. (714)524-8800 Fax.(562)690-8044</p>	<p><b>주 예수교회</b> 담임목사 : 배현찬</p> <p>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Tel. (804)560-7500 Fax.(804)560-7514</p>	<p><b>코너스톤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p> <p>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Tel. (310)530-4040 Fax.(310)530-8400</p>
<p><b>퀸즈한인교회</b> 담임목사: 이규섭</p> <p>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p> <p>Tel. (718)672-1150 Fax.(718)672-1151</p>	<p><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 김성국</p> <p>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p>Tel. (718)886-4040 Fax.(718)358-7789</p>	<p><b>필라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 조진모</p> <p>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p> <p>Tel. (215)927-0630 Fax.(215)927-0643</p>	<p><b>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 김선만</p> <p>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Tel.(860)643-4738 Fax.(860)647-0565</p>	<p><b>하와이 행복한교회</b> 담임목사 : 이남수</p> <p>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Tel.(808)585-1859</p>	<p><b>한마음침례교회</b> 담임목사 : 박마이클</p> <p>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p> <p>Tel. (516)277-1103 Cell.(917)922-0500</p>	<p><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 조일구</p> <p>2122 Metcalf St., Hon., HI 96822</p> <p>Tel. (808)947-5252 Fax.(808)947-5151</p>



독자투고

‘어린이 찬양 대회를 준비하며...’



임보희 사모 (남가주교회음악협회 어린이 분과장)



지난해 열린 찬양제에서 우수한 어린이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뒷줄 오른쪽 두번째 임보희 사모

오는 4월 30일(토) 남가주교회음악협회(회장 김원재)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찬양대회’가 세리토스 ‘생수의강선교회’에서 개최된다. 올 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 대회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축제로 울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대회를 준비하는 일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함과 동시에 많은 생각들을 해본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 현실처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성인이 되면, 이 땅의 많은 교회는 교인수의 감소로 인해 교회가 문을 닫거나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당연시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 예상된다. 이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늦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긴박한 시간이 되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남가주 교회음악협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며 고민해왔다. 그 대안 중 하나로 ‘자녀들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자’고 뜻을 모으게 되었고 기도로 준비해왔다.

이 대회는 세상의 대회들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아이들의 재능과 음악적 능력만을 평가하고 상을 주는 대안 목적을 두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어린 학생들에게 ‘찬양이 무엇인가?’를 바로 경험케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그들을 깨우며,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 이 대회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뜻이 한 순간 아이들에게 전해 지지 않겠지만 꾸준히 이런 시간을 준비하며 나아가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귀한 마음이 전달되리라 믿는다.

이 대회의 지나온 발자취를 보면 비록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의 역사를 가졌지만 그동안 적잖게 많은 열매가 있었다고 본다. 주일학교가 없어질 위기에 놓였던 한 교회도 아이들이 찬양하며 함께 연습함을 통해 주일학교가 다시서고, 눈을 못 보는 장애우 아이가 미래를 기대하지 못 했지만 이 대회를 통해 ‘찬양 사역자’로 쓰임 받기를 헌신하기도 했다. 또 무대 공포증이 있었던 한 아이는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주님이 나를 도와 주신다’는 찬양의 능력을 확실히 깨달았음을 간증하기도 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시는 은혜로 여러 간증과 열매가 곳곳에 있었음을 나는 그동안 눈으로 보았고 이 미국 땅에 아직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이 협회를 통해 발견해가며 주 안에서 함께 사역하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한다.

‘주님이 울고 계신다’는 생각이 문득 문득 들곤 한다. 많은 수의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음악에

빠지고, 그 기쁨에 유혹되어 세상 유혹에 넘어가며, 죄를 탄피하는 이 아픈 세대에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과연 ‘미래의 주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금번 찬양제를 통해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기회에 참여함으로 ‘함께 발걸음을 같이 하자’라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다.

우리는 주님이 보내시는 ‘찬양하는 아이들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 교회와 지도자들이 나서서 돕고, 아이들에게 찬양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기도한다.

무엇보다 주님이 이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찬양을 가장 기뻐 받으심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꿈을 꾸며 이 대회를 준비한다. 2016년 제3회 어린이 찬양 대회(선악, 피아노)에 관한 웹 사이트 <http://kcmasc.org> 에서 확인하거나 (909)610-5431로 문의하면 된다.

세계종교 문화뉴스

서서히 성장하는 태국교회

3월 1일 치앙마이의 연구소는 태국 기독교회(Church of Christ in Thailand: CCT), 태국복음주의교회(Evangelical Fellowship of Thailand), 태국 침례교회 지도자를 초청, 태국기독교회 역사와 상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현지인 목회자 7명도 참석하였다. 태국교회는 법적으로는 위의 3단체가 정부에 등록된 교회로서, 대부분 한국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는 이 단체에 가입한다. 등록되지 않는 교회는 사실상 불법 교회로 인정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통역한 김 선교사도 서둘러 가입을 신청하고 있다. 앞으로 태국 선교 상황이 불안할 수 있다고 한다.

태국 인구 6천6백만 중 기독교 인구는 불과 1.2%이다. 태국기독교회는 아직도 소수부족등과 산지 지역에서 부흥하고 북부지방에 신자가 집중되어 있다.

선교적으로 일본과 태국은 아주 유사하다. 두 나라는 19세기 후반 과감하게 서양문화 도입하였고, 서양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은 특이한 나라이다. 서구 강대국들이 침략하려고 하였지만 ‘교묘한 외교술’로 식민지를 피하였다. 두 나라 다 같이 서구화하면서도 기독교는 철저히 배제한 나라이다. 왕을 아주 신격화한 나라이다. 왕을 모독하는 행동이나 언사는 아주 위험하다.

CCT는 WCC 가입교회들의 연합이지

만 한국의 비 WCC교회 선교사들도 많이 가입되어 있다. 이 교회는 2차 대전 후 WCC 영향으로 전도와 선교보다 사회봉사, 사회참여에 더 치중하여 50년대 복음주의교회들이 복음주의교회연합을 세웠다고 한다. 태국(인종주의적 타이사람) 불교인 전도가 어렵지만 태국인 불교도들 중에서 개종자가 생기고 있다고 한다. 고무적인 일이다.

세 명의 감사들은 한국 선교가 기여할 일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우회적으로 “돈 선교”보다는 태국사역자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줄 것과 태국교회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하였다.

한국교회에 호소하고 싶은 것은 태국에도 교회당 건물이 문 닫은 곳이 많다고 한다. 헌신적인 사역자와 교회당을 헌신적으로 지킬 세례교인들이 없을 때 교회당 건물은 문을 닫게 된다.

(이슬람연구소)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월 진리를 사랑하자(마7:6)찬403장

은혜 받는 것도 귀하나 그것을 잘 간직함은 더 귀합니다. 본문은 은혜의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첫째,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바로 분별해야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다른 호칭들로서 모두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할 수도 있고 예수님 자신에게 귀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입니다. 둘째, 개와 돼지는 세속에 속한 것의 비유입니다.

다. 개와 돼지가 보화의 가치를 알 수 없듯이 은혜와 진리를 경멸하는 모든 생각, 말, 태도 그리고 삶의 방식은 큰 불행으로 나가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육적 욕망으로 말씀을 받지 말고 그것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켜야합니다. 셋째, 진리를 바로 대접하는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합니다.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길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화 기도하는 법(마7:7-11)찬404장

천국 백성의 또 다른 특징은 바른 기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주기도서 보여주시는 기도의 원리가 기도하는 삶에서 세 가지 형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구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묻는 것처럼 높은 분에게 공손히 간절하게 자기 의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란 무엇을 받아내는 것보다 교제를 통한 사랑의 연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찾는 것의 헬라어 제테오는

수고를 들여 잃은 것을 찾는 행위입니다. 세상에서 상실한 모든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찾아내는 수고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두드리는 클루모는 무엇을 받아내는 공갈치듯 무리한 접근이 아니고 손매듭으로 문을 두드리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끈기있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세계로 나갑니다.

수 황금률(마7:9-12)찬278장

주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 기도를 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이웃을 대접하는 삶을 배우게 하려는데 있음은 놀라운 지혜입니다. 황금률이라 일컫리는 12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 대접의 기준이 자기 대접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무엇이든지 사랑

본위의 대접을 하라하십니다. 이것은 사랑 실천의 대원리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누립니다. 셋째, 성경의 사랑을 한 마디로 요약한 대접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인 십계명은 사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의와 인과 신(마22:37)이 현실화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 좁은 문으로 가라(마7:13-14)찬257장

두 갈래의 길은 본래 에덴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와 멸망을 말하는 선악을 아는 나무 중 하나를 바로 선택할 때 생사를 결정하게 한 것이 실낙원 이후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인과 아벨로 나눠진 흐름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길과 적그리스도의 길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두 길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넓은 길을 떠나야합니다. 이 길은 세상이 구하

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인간주의로 이끄는 사망의 길입니다. 그 길은 찾는 이가 많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사망으로 떨어집니다. 둘째, 좁은 길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세상의 뜻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생을 얻습니다.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천국백성의 길인 좁은 길을 갑시다.

금 신자의 열매(마7:15-20)찬43장

주님을 주로 삼아 따르는 신자는 주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야합니다. 그것은 모든 생활 속에 그의 열매를 나타냄으로 표현됩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첫째, 거짓교훈을 경계해야합니다. 거짓선지자의 출현은 언제나 일어나는 것으로 그들의 목표는 거짓교훈을 따르게 함으로서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의 열매는 비슷해 보이나 근본이 다릅니다. 둘째, 그러나 복음을 따른 열

매가 나타나야합니다. 이 열매는 나무의 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열매를 자기 힘으로 맺게 하려는 노력보다 무슨 나무가 되는가, 곧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삶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요15:5).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에 우리의 노력을 경시하는 뜻이 아니고 도리어 그 열매가 귀하기 때문에 최고의 수고를 기울이려는 긴장을 갖습니다.

토 천국에 들어갈 자(마7:21-23)찬502장

하나님나라의 통치를 가리키는 천국은 실제로 왕래가 가능한 장소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어떤 종교행위도 그 나라에서 제외됩니다. 주님이 장소성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요14:1-5).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입니까? 첫째, 진실주의 자가 들어갑니다. 말로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외사주의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의 소욕은 결코 참여할 수

없기에 거듭나야만 한다고 단정하셨습니까(요3:5). 둘째,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의 뜻을 따르는 능력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따르기 원하고 연합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 떠나도 영생의 맛을 알기에 결코 떠나지 못합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international churches with their names,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Churches include Kumran, Dandenong, Roman Catholic, New Covenant, Seungwon, Seongsil, Seungil, Sujeong, Seungdong, Siyeon, Shinji, Shincheon, Shinchon, Anam, Yanggok, Wangseong, Jangwi, Juangok, Changdo, and Chungju.



#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격동하는 지구촌의 종말론적 시대상황에 대한 선교전략의 재정립을 위해!  
 세계복음화의 미완성과업을 위한 위대한 선교비전과 긴박성의 재확인을 위해!  
 700만 한인디아스포라와 7000여 한인디아스포라교회의 선교적 대각성을 위해!  
 국내외 최고 강사진 200여명과 세계한인선교사 1200여명을 비롯한  
 목회자, 평신도, 청년, 대학생, 청소년, 어린이 및 선교사자녀(MK) 등  
 도합 5000여명의 집결을 예상하는 이 시대 최대규모의 동반자 협력선교의 대광장!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캘리포니아



로렌 커닝햄 YWAM 총재, 데이빗 로스 안디옥커넥션 대표, 폴 애실맨 CRU 부총재, 론 스미스 YWAM SBS 성경학교, 타드 존슨 고든컨웰 교수, 존 왈러스 아주사대학교 총장, 서삼정 아틀란제일장로교회, 한기홍 은혜한인교회, 김남수 프라미스교회, 장영춘 퀸즈장로교회, 나광삼 큰우리교회



고석희 KWMC 사무총장, 이승중 샌디에고에수마교회, 김혜택 뉴욕총신교회, 배현찬 주 예수교회, 호성기 필라델피아교회, 정인수 아틀란제연합장로교회, 이동휘 바울선교회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 채수일 한신대학교 총장, 강승삼 KWMA 전회장, 박기호 플러신학교 교수



김양재 우리들교회, 오정호 새로남교회, 장상길 송도주사랑교회, 마이클오 국제로잔운동 총재, 이동열 GYM 사무총장, 송충석 KWMF대표회장, 안성원 KWMF사무총장, 한도수 KWMF공동회장, 김중국 KWMF공동회장, 박명하 KWMF공동회장, 강대홍 태국선교사



강성일 브라질선교사, 이극범 프랑스선교사, 최광규 도미니카선교사, 김영관 베트남선교사, 김경일 KWMF사무차장, 김정환 미주선교사, 정석천 태국선교사, 최용순 가나선교사, 이금주 말레이시아선교사, 김승호 일본선교사, 장영호 러시아선교사



## 제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

2016년 6월 3일(금)-6일(월) /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전세계 한인선교사 1,200명



오정호 새로남교회, 유기성 선한목자교회, 진재혁 지구촌교회, 김양재 우리들교회, 김동엽 목민교회, 김문훈 포도원교회



스쿠트선키스트 플러신교대학원장, 고석희 KWMC 사무총장, 한정국 KWMA 사무총장, 최형근 서울신대 교수, 김병윤 필리핀 선교사, 강윤식 기쁨병원 원장

등록문의 [www.kwmc2016@gmail.com](http://www.kwmc2016@gmail.com)  
 KWMF • 인도네시아 62-813-8100-9905, 070-8221-1361 • 미국 1-213-507-3875

KWMC2016 6월 6-10일	일반 (만26세 이상)	대학생/청년 (만18~25세)	청소년 (만13~17세)	초등학생 (만7~12세)	아동 (만3~6세)
1차 3/31 마감	□ \$300	□ \$200	□ \$150	□ \$100	□ \$50
2차 5/15 마감	□ \$325	□ \$225	□ \$175	□ \$125	□ \$75
3차 6/5 마감	□ \$350	□ \$250	□ \$200	□ \$150	□ \$100
KWMC 대회숙박	□ 기숙사 2인1실 \$150 /1인당 (4박5일) □ 아파트 2인1실 (2 베드룸) \$200 /1인당 (4박5일) □ 아파트 2인1실 (1 베드룸) \$215 /1인당 (4박5일)				동숙-무료 별도침대 □ \$50

\*숙박을 안하실 경우 등록금만 내시면 됩니다. \* 하루만 참가하실 경우(DAY-PASS) \$100 입니다.  
 \*한 교회에서 단체등록시 10명 이상은 등록금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숙박비 예외)

## 제3차 선교사자녀대회

2016년 6월 3일(금)-6일(월) 17세 이상 선교사 자녀 400명

모든 세대가 함께 가는 KWMC2016!

KWMC2016은 모든 세대가 함께 가는 선교대회입니다. 아래 대회들은 모두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와 동일한 일시인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동안 한 장소인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개최됩니다.

## 영어권대회 English Conference

18세 이상 영어권 대학생/청년  
 이동열 선교사 GYM 사무총장

## 어린이선교대회 청소년선교대회

3-12세 여병현 목사 어린이전도협회

13-17세 고현진 전도사 고유진 전도사

일시	대회	대상
6/3(금)-6/6(월)	한인세계선교사대회	전세계 한인선교사
	MK(선교사자녀)대회	17세 이상 선교사자녀
	MK청소년선교대회	13-16세 선교사자녀
	MK어린이선교대회	3-12세 선교사자녀
6/6(월)-6/10(금)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18세 이상 한어권
	차세대영어권선교대회	18세 이상 영어권
	청소년선교대회	13-17세 청소년
	어린이선교대회	3-12세 어린이

등록문의 **KWMC**  
 온라인등록 ▶ [www.kwmc.com](http://www.kwmc.com)  
 이메일등록 ▶ [kwmc@kwmc.com](mailto:kwmc@kwmc.com)  
 전화 ▶ 516-277-2081, 2082  
 팩스 ▶ 516-686-6128  
 ▶ 등록비가 인상되기 전에 속히 등록하시고 항공편도 속히 예약하실수록 저렴할 것입니다.

**KWMC2016**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1330 Wolver Hollow Rd, Oyster Bay, NY 11771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캘리포니아  
 901 E Alostia Ave, Azusa, CA 91702

